朝鮮日報
第二夕刊 十六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月刊『朝光』 月刊『女性』 月刊『少年』

北海附近上陸精銳 ○○占領、一路猛進

上陸即時軍司令官布告發布

【廣東十六日發同盟】北海西方에 奇襲上陸한 我○○部隊는 敵第十六集團軍總司令 蔡廷楷指揮下의 廣東軍 有力部隊를 단번에 擊破하고 果敢한 猛進을 繼行中이다

【東京灣北岸에서十六日 井上、寺田兩同盟特派員發】昨十五日午前八時 東京灣北岸北海附近에 上陸한 原田、田村、納味諸部隊는 附近의 敵 約四千을 擊滅하고 追擊을 開始 風雨를 무릅쓰고 前進 又前進하여 同夜七時에 ○○을 占領한後 繼續○○을 向해 前進中이다

【東京電話同盟】大本營海軍報道部公表 十六日午前十一時 四十五分

○○島攻略部隊는 昨十五日正午頃부터 海軍艦艇援護下에 泊地發○○○으로 遡行을 開始하여 夕刻에 同島를 完全 占領하였다 海軍艦艇은 同部隊上陸에 앞서 同島에 對하여 掩護射擊을 實施하여 【토치카】陣地에 依據한 敵을 擊破潰滅하였다

【廣東十六日發同盟】皇軍의 北海西方上陸과 同時에 大日本軍司令官의 名으로써 【民衆과 支那軍將士에 告하는 書】를 發하여 廣西省軍民은 곳 世界의 大勢를 살피어 抗戰의 無益함을 깨닷고 我軍과 提携하여 新中國建設에 協力하라 日本은 支那民衆을 敵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 日本軍과 提攜하는 者는 軍民을 不問하고 保護를 加할것이다 敵意를 품고 反抗하는 者는 斷乎容赦하지 안코 徹底히 膺懲하다고 附言하였다

【廣東十六日發同盟】○○東南○○港으로부터 行動을 開始한 我軍의 大艦隊는 風雨가 거치른 南支那海의 波濤를 睥하고 堂堂히 行進하여 十五日早曉突然 東京灣北岸의 ○○에 威容을 나타내엇다 午前五時 決死의 勇士○○名은 曉頭의 波濤를 睥하고 舟艇에 分乘하여 敵前上陸을 敢行 第一線部隊는 直時進擊 所在의 敵을 擊散하면서 進軍 南支那抗日의 牙城○○에 猛進中이다 (正午解禁)

【廣東十六日發同盟】我陸海精銳는 十五日未明 突然 南支那海 東京灣頭에 出現 北海西方에서 果敢한 敵前上陸을 敢行하엿다 이날 前夜부터의 風雨가 더욱 甚해저서 先遣隊를 滿載한 汽艇이 母船을 떠날때는 風速十五米로부터 十八米에 達하여 정히 汽艇은 文字그대로 木葉과가치 飜弄되엇스나 沈勇冷靜한 我勇士는 悠悠自若하여 거의 無事故로 上陸에 成功하여 南支抗日殲滅의 大事業의 第一步를 내어드디엇다 陸의 精銳 ○○部隊와 海의 勇猛 ○○部隊는 사이도 여시 ○○方面으로 向하여 猛進中이다

一、昨夕刻에도 天氣는 依然히 險惡하여 風勢도 如前하여 上陸部隊、抵陣作業部隊、陸戰隊의 辛苦는 言語에 絶하여 그 行動은 壯烈無比하엿다

第一線部隊도上陸

前面敵軍은蔡廷楷麾下

【○○艦上에서十六日井上同盟特派員發】아직 皇軍의 威武를 모르는 南支西南隅佛印을 距하기 僅二十餘里인 東京灣을 指呼하는 十五日 午前五時 黑一色의 曉闇이 咆哮하는 激浪을 衝하여 進擊 忽然敵의 意外에나와 奇襲上陸을 敢行한 我南支派遣軍 一部精銳部隊는 終日불어오는 疾風을 무릅쓰고 逐次戰果를 擴大 勇猛果敢한 猛進擊을 續行하고잇다 敵主力新編 第十九師는 我奇襲作戰에 依하여 混亂의 極에 達하여 潰走하기 始作하엿스므로 欽廉道中部及 西部의 要衝○○、○○의 攻略은 벌써 目睫間에 迫到하엿다 그리고 十六日午前九時 我艦船團 第一部隊에 上陸命令이 내렷다 아직도 불어오는 烈風을 무릅쓰고 繼續上陸을 開始하매 皇軍의 威武는 南支天地를 睥하여 壯烈無比한 皇軍의 大進擊은 展開되엇다 全將兵의 意氣는 益益旺하여 衝天之威이엇다

【廣東十六日發同盟】當地에 達한 支那側情報에 依하면 皇軍奇襲上陸急報를 바든 蔣介石은 周章狼狽하여 곳第四戰區司令長官張發奎 十六集團軍總司令 蔡廷楷等에 對하여 欽廉地方에 增援軍急派를 嚴命하엿다 그리하여 蔣介石의 嚴命을 바든 防衛責任者인 蔡廷楷는 麾下四十六軍(第百七十五、百七十新編十九師의各師)及第三十一軍(百八十八、百三十一、百三十五의各師)에 對하여 守土抗戰의 嚴重命令을 發하엿다고 한다

【廣東十六日發同盟】我當面의 敵配備狀況은 다음과갓다 即第十九路軍司令蔡廷楷가 集團軍司令이되고 그미태 北海合浦方面에 第百七十五師(師長莫樹杰)防城欽州一帶에 新編第十九師(師長黃固)更히 그南方에 第百八十八師(師長劉任)等 三個師를 根幹으로하고 其他에 約十萬人에 達하는 各地民團軍保安隊等은 廉孔한 地區에 配置하여 一切交通網을 破壞 皇軍의 進擊阻止에 努力하고잇다

惡天候로困難莫甚

大本營陸軍部當局談

【東京電話同盟】大本營陸軍部에서는 北海附近의 上陸作戰에 關하여 十六日左와如히當局談을 發表하엿다

大本營陸軍部當局談

北海附近의 上陸作戰은 惡天候에 말미아마 非常한 困難에 逢着한모양이다 風速二十米突이라면 큰나무도 움직길程度이다 海岸에서風濤의 難은 想像하기에 不難하다 그荒天은 突發의것이 아니고 數日前부터 險惡하엿스나 我軍은 敢然이를 突破하여 困難한 敵前上陸作戰을 敢行한것이다 電報를보건데 波濤때문에 上陸用舟艇은 舟腹을 半以上 空中에나타내엇다한다 暗夜의 海中에서 運送船으로부터 武裝한將兵이 사다리에 依하여 舟艇에 移乘하는 動作이 如何히 危險하고 困難한것인가는 想像키 不難하다 舟艇移乘後도 長距離에 亘하여 海上을 機動하여 海上의 暗礁를 突破하여 壯烈한 敵前上陸을 敢行 海岸의 敵과 激烈한 戰鬪를 交하여 이를 擊攘한것이다 이런 荒天時의 上陸作戰은 元寇와 屋島合戰의 이야기는 몰라도 近代戰史에는 全然比類를볼수업는바로 上陸部隊의 辛苦는 勿論아무런 事故가업시 豫定대로 着着上陸作業을 遂行하엿다 我陸軍揚陸作業部隊及이에 協力한 海軍陸戰隊의 努力은 感激할만한바가잇다 上陸作戰部隊가 任務를爲하여는 生死를超越하고 相扶相勵하여 陸海가 渾然一體가되어 豫定의 作戰計畫을 遂行하여 赫赫한 戰果를 거둔 것은 皇軍이라야 비로소成就할수잇는바이다 이는 我無敵上陸作戰의 成果를 世界戰史上에 빗나게 하는것이다

大本營陸軍部發表

【東京電報同盟】大本營陸軍部發表 十一月十六日正午

一、○○部隊上陸은 極히 順調로 위서 昨十五日正午頃 그太半을 終了 主力은 風雨를衝하고 猛進을繼行하여 夕刻에는 ○○을指呼間에 바라볼수잇는地點에 進出하엿다

一、○○○에 海上機動한 山縣部隊의 上陸은 壯烈을 極하엿다 將兵은 舟艇移乘後 狂風怒濤와 싸우기 十餘時間 險難한水路를突破하고 海岸에서 强硬히 抵抗하는敵을 果敢히擊破 逐次그地域을擴大하여 昨報와가치 夕刻에 이를占領하엿다

皇后陛下

女子學習院에行啓

【東京電話同盟】皇后陛下께옵서는 恒常 女子教育에 기프옵신御心을 傾注하옵시는바 十六日三年만에 靑山女子學習院에 行啓하옵시엇다 이날 陛下께옵서는 御出發을 하옵시고 保科女官長 御陪乘 廣幡皇后宮大夫以下를거나리시옵고 略式自動車 御警衛로 午前九時半 宮城御出門 長房院長以下職員奉迎裡에 御着 院長에 賜謁하옵시後 院長의 御先導로 順次各教室을御覽하옵시엇다 時히 平常狀態를 御覽하옵신御趣旨에서 御巡覽의 御順次는 教授나學生이 모두 拜承지못하여 各教室이 모두 突然의御臨御를拜하여 一同恐懼하여 마지안헛다 陛下께옵서는 午後에도 御覽을 계속하옵시고 二時間에 亘하옵신 御少憩後 南舘의幼稚園、前期中期級의西舘東舘의 教室體操場等을 御熱心히 御覽하옵시고 午後二時四十五分 一同奉送裡에 同院御出門 御還啓하옵시게 되옵시엇다

共産軍集結에對應

中央軍移動活潑化

【香港十五日發同盟】重慶來電에 依하면 陝西、甘肅、寧夏를中心으로하는 各邊境地區의 共産軍의 移動集結에 對應코자 重慶側의軍事行動은 河南、陝西、甘肅及 四川各省에걸처 大規模로 急速度로 進行되어 中央軍部隊의 配置變更이 자못 活潑히 進行되고잇다한다 이와 並行하여 國民黨側은 各機關及共産黨軍의 非合法行爲에 對한 取締를 一層峻嚴히하여 重慶에서는 重慶司令劉峙가 六中全會開會直前 中國共産黨秘密機關 三個所를 襲擊하여 重慶政府轉覆陰謀에 關한 文書多數를 押收하고 十數名의 共産黨員도 檢擧하엿다 中國共産黨員도 檢擧되엿다 中國共産黨過激分子에 對한 壓迫은 湖南及廣東兩省에서도 峻烈히 行해저서 廣東省에서는 新華日報、解放、群衆等 中共機關新聞及 雜誌가 모두 發賣禁止處分을 當하엿다

天津問題解決을

英、各方으로劃策

【倫敦十五日發同盟】英國政府는 北支駐屯軍撤退斷行에依하여 顯著히 對日接近態度를보이고잇는데 十五日라스外交記者는 同紙上에서【現銀引渡問題에 關하여는 重慶政府의同意만 어드면 如何한解決案에도 應할 意向이나 所有者의同意가업스면 如何한 支那의 財産도 沒收할수업다】라고 依然히 頑迷한態度를 表明하엿다 右에 關하여 當地外交消息通에서는 右報道는 日英關係를 改善하여 天津問題解決을 圖하고자 希望하고잇다는 英政府의 旣定方針에 合致되지 안는것으로 보고 도리어 現銀引渡問題는 近近解決이 期待되고잇다고 觀하고잇다 그리고 情報省은 新聞通信社에 對하여 祕密히 滿洲附近에 不時着한日英利合會社所屬 旅客機問題에 關하여 日英關係改善에 支障을 招來치안토록 特히 取扱上注意를 要請하엿다고하며 更히 政界上層部間에서는 上海英國駐屯軍의 兵力削減을 考慮하고잇는者도잇다고하는바 外務當局은 아직右事實을否定하고잇다

滿洲開拓民

處理委員會

滿拓、鮮拓合倂의 細目協定을 協定하려고 滿洲開拓民處理委員會는 오는二十日新京에서 開催되므로 總督府로부터 近拓務課長이 出張次 十六日午後三時四十分發『노조미』로 新京으로向할터이다

獨逸側拒否通告로

和平提議遂失敗

白和兩政府今後態度를協議

【伯林十五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白耳義 和蘭兩元首의 和平提唱에 對하여 數日間 愼重히 對策을 練磨하는同時에 英佛側의 態度를 注視하고잇던바 英佛政府가 이를拒否하엿스므로 問題는 自然解消된것으로보고 十五日午後 리벤트롭프外相을 通하여 駐獨白耳義大使 다비니온氏及 和蘭公使 데비츠氏에 對하여 右旨를通告하엿다 右에 關하여 獨逸官邊은 十五日夜 非公式으로 左와 如히 發表하엿다 리벤트롭프外相은 十五日 白耳義大使를引見하고 히틀러總統의 名義로 左와如히 通告하엿다

白耳義、和蘭兩國元首의和平提唱은 英佛兩國政府로부터簡單히拒否되엇스므로 獨逸政府로서는 同提案은 이로써解消된 것으로 看做하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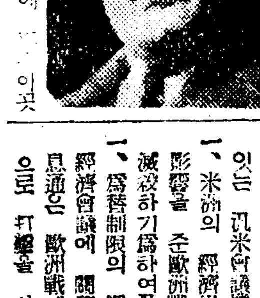
【海牙十五日發同盟】和蘭政府는 十五日夜獨逸이 和平提案을 拒否하엿다고 公表하는同時今後의 和蘭政府의 態度에 關하여如左히 發表하엿다

리벤트롭프獨外相은 十五日午後六時三十分 和蘭及白耳義大使에게 對하여 如左히通告하엿다

【英佛政府가和平提案을 쉽사리拒否한데 鑑하여獨逸은公式回答을하지안는다】和蘭政府는獨逸側의 右通告를밧고 目下事態를 檢討中이다 今後如何한 行動을 取할가함에 對하여는 白耳義政府와協議할터이다

루즈벨트米大統領

三期出馬決意暗示



【華盛頓十五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은 第三代大統領 젯스‧제퍼손(民主黨創立者)記念堂定礎式에 參列하여 合衆國民은 故人의 理想을 讃揚하여 今日에이른데 그가 確立한 共和政體에 더욱 滿足을 表示한다고述한後 余는一九四一年 이 記念堂落成式에 다시 이곳에 오게되기를希望한다고式辭를 하엿는데 이말로써或은第三期出馬의 決意를 暗示한 것이아닌가하여 政界에서는 이를重要視하고잇다 그런데 現大統領의任期는 一九四一年一月二十日에終了된다 (寫眞은 루大統領)

汎米經濟會議議題

【파나마十四日發同盟】汎米經濟會議는 十四日부터 파나마市에서 開催되엇는데 主催國을 代表하여 파나마의 칸포外相은 開會辭를 하는同時에 會議議題를 如左히 發表하엿다

一、米洲諸國의 通信、交通機關의 改善

一、米洲諸國間의 크레딧트의便宜를 圖謀하기爲하여 國際性잇는 汎米會議機關의 組織

一、米洲의 經濟組織에도 重大影響을 준歐洲戰爭의 打擊을 減殺하기爲하여汎米精神의發揚

一、爲替制限의 緩和

그리고이 經濟會議에 關聯하여 政界消息通은 歐洲戰爭때문에 經濟的으로 打擊을 바든 南米諸國을 救援하기爲하여 米國으로 大한 保有金의 使用을 提案할지도 모른다고 觀測하고잇다

米、强力巡洋艦

二隻建造計畫

【華盛頓十五日發同盟】에디슨海軍長官代理는 十五日 新聞記者團과의 會見席上에서 如左히言明하엿다

亞米利加는 不遠한將來에 現在大西洋上에서 活動中이라는 獨逸袖珍戰艦보다 優秀且强力한 巡洋艦을 建造코자 歐洲戰爭經驗에 鑑하여 現在二隻을設計中인데 이는現在까지에 如何한國家에 依하여 建造된것보다도 優秀한型이라고 余는밋는다 噸數에關하여는 倫敦海軍條約이 이미 失效되엇스므로 大槪八千噸以上이 될것이다 그리고 에디슨海軍長官代理는 目下 빈슨下院海軍委員長이 立案中인 十三億弗、大艦艦案에對하여는 一切言明을 避하엿다

和蘭緊張緩和

米의積極的同情으로

【암스테르담十四日發同盟】獨蘭國境의 衝突事件에依하여 惹起된 和蘭國內의緊張도 漸次緩和되어 十四日에는 一日延期되엇던 國境方面 避難民도 歸還을 開始하엿다 和蘭政界消息通은 和蘭女王이 十三日 重大使命으로 會見한事實 米國公使가 루즈벨트大統領의 멧세이지를 携行한것은 注目할바이며 和蘭은 侵略乃至不當한 壓迫을 바들境遇 米國政府의 積極的同情을 期待할수잇는 立場에서게 되여 그로公使의 女王訪問은 緊迫한 現情緩和에 極히有力하엿던것은 疑心할수업다고 보고잇다

八面鋒

◇日英、日米、日蘇國交調整問題 英國은 駐屯軍을 撤退하여 讓意를 뵈이나 아주 一步한다고 볼수업고、

◇米國은 英佛軍撤退後의 監視員가튼 役割을하려고 通商條約廢棄、艦隊의 布哇集中等 牽制政策을쓰고、

◇蘇聯은 二正面作戰의 中止된것을 보고 有利하게 展開하랴에쓰니、

◇野村外相의 左衝右突하는外交的 手腕이야말로 조흔試驗期。

◇獨逸이 北海의 制海權을 가지고 蘇聯과 通하고 빨칸의 制海權을 가진다면 英佛米의 長期戰에 相當히 견딜수 잇스나。

◇國內經濟가 그리 豐饒치못하고 蘇、伊의 向背가 確實치못한지라、和白兩國境을 넘어 佛國을 一擊之下에 粉碎하라는 速戰即決政策도 考慮치안흘수 업서。

◇獨逸이 戰法을 確定치안흔것도 그裡面을 알면 疑心할餘地조차 업지。

◇京城市場서는 잘한일에 보리 한되씩 껴서팔라고 府尹이 嚴命。

◇節米되고 混食되어 食糧政策、衛生政策에 一石二鳥나、

◇雜穀價가 米價보다 지지안흐니 經濟로는 생각할 問題。

◇朝鮮內 煙草價를 一、二錢씩 引上。

◇이것은 九‧一八價格停止令과 矛盾되지 안는가。

國府、米國에

飛行機를注文

【紐育十五日發同盟】在重慶에 專力中인支那國民政府는 今番새로 에비에쉬航空機工業會社에 對하여 供給機二十五臺分의 部分品其他 제작를만 注文을 發하엿는데 그總額은百萬弗에 達하다고한다

廣州灣佛當局

境界警備兵增加

【香港十六日發同盟】廣州灣으로부터 當地에 達한外人側報道에依하면 日本軍이 昨今의 荒天을무릅쓰고 上陸을 敢行하리라고는 꿈에도 豫測치못한 支那沿岸防備隊는 日本軍의 北海附近上陸에 文字그대로 呆然하엿다 한다 日本軍은 거의 抵抗을 밧지 안코二隊로나누어 進擊 一隊는 北海로 向하고 他隊는 ○○로 向하고잇다 또다른情報에 依하면 現在支那軍은거의 抵抗할 힘조차 갓지 안코 日本軍은 今夕까지 北海에 達하고 明朝까지에는 ○○에 達할것으로 보고잇다 廣州灣佛國當局은 境界警備兵을 增加하여 支那領으로부터 몰려올 避難民에 備하고잇다

拓相、首相을訪問

"閣僚補充"을進言

【東京電話同盟】金光拓相은 十六日午後零時二十分 首相官邸로 阿部首相을 訪問 所管事項에 關하여 事務的打合을 遂行하고 閣僚補充問題에 言及하여 政友會의 黨內事情에 關하여 說明하고 補充의 時期方法等에 對하여 進言한 後 午後一時半 辭去하엿는데 拓相은 首相과會見後 左와 如히 말하엿다

自己는 近近來京할 豫定인 이므로 이에對하여 協議하엿다 그時에閣僚補充問題에對하여 首相에게 그後의 情勢는 어떤가고 물어엇더니 何等變함이 업다는것이엇다 閣僚를補充할는지 그與否는 一로首相의 決定에 依하는것인데 自己로서는 從來부터 생각하는대로 補充하면 이조흘것이라고 생각한다 補充한다고하면 어느方面으로부터 할것이냐하는것 이에 對하여는 政黨方面에 物色하는것이 當然의 일이 아닌가고 생각한다

興亞院異動

【東京電話同盟】海軍定期異動에 伴한 興亞院異動은 十六日附官報로써 如左히 發表되엇다

任興亞院調査官(三等) 海軍大佐 石川信吾
命興亞院政務部第一課長
任興亞院調査官(三等) 海軍大佐 土井元男
命興亞院華北連絡部在勤
任興亞院調査官(三等) 海軍大佐 中堂觀惠
命興亞院廈門連絡部在勤
任興亞院調査官(四等) 海軍機關中佐 富岡壽男
命興亞院華北連絡部在勤
海軍軍醫中佐 加藤靜[?]
任興亞院調査官(四等)
命興亞院中華連絡部在勤
海軍軍醫中佐 內田東明
命興亞院華北連絡部在勤
興亞院事務官被仰付

企畫院異動

【東京電話同盟】海軍定期異動에 伴한 企畫院異動은 十六日官報로써 如左히 發表되엇다

任企畫院部長 海軍少將 阿部嘉輔
命企畫院第二部長
依願免本官 企畫院部長 [?]早 [?]酒
企畫院部長 黑田 [?]五
命企畫院第六部長兼企畫院[?]部長

須磨外務省

情報部長渡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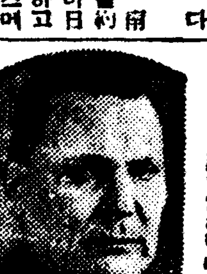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外務省情報部長 須磨彌吉郎氏는 十六日飄然來阪、田尾上海領事와함께 午前十一時三十分發急行上海로向하엿는데 다음가치말하엿다

今般休暇가잇스므로 上海、南京、北京、天津、新京等地를約 二週間豫定으로 視察하겟다 日蘇交涉을 東京에서 擔當하고잇는듯이 新聞에낫스나 스메타닌大使는 二十日頃信任狀을 捧呈할豫定으로 따라서 昨日野村外相스메타닌會見도正式의것은아니다 日英、日米國交調整은 一進一退의 情勢에잇는바 四國의 情勢도 보아 日本에 有利하게 展開시켜갈뿐이다

伊太利巡洋艦進水式

【羅馬十五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十五日午前伊太利海軍의 新銳巡洋艦 [?](三五、○○○噸)가 無事進水式을 終了하엿다고 發表하엿다

펠링獨空相訪伊說



【羅馬十五日發同盟】獨逸펠링空相의 訪伊說이 傳하던바 十五日에는 펠링空相은 現在羅馬에 在하여 伊政府首腦와 協議中이라는 說이 傳한다 有力한 消息通은 이 說에 對하여 否定도肯定도 안하는데 獨伊交涉은 잇슬수잇는일이라하여 注目을끈다 (寫眞은 펠링獨空相)

蔣、外人에게逆宣傳

皇軍上陸成功에唐慌

【上海十六日發同盟】重慶來電에 依하면 我北海附近奇襲上陸 成功의 報에 重慶當局은 極度로 狼狽하여 蔣介石은 即時 西南行營에 命하여 緊急軍事會議를 開催 對策을 協議케하는一方 重慶의 軍事代辯者로 하여금 外國側에 左와如한 宣傳文을 發表케하엿다

日本軍의 北海附近上陸의 報는 我方이 미리 察知한바이며 我方은조금도 驚愕치안는다 생각컨대 日本軍今次行動의 目的은 目下重慶에서 開催中의 六中全會의 建設的空氣를妨害하려는데 잇슬것이다 北海로부터 桂林까지는 가장가까운 道路를거러도 四十哩나된다 이를突破하려면 非常히 大規模한軍事行動을必要로하는바로 日本軍이이를 敢行치못할것이다 그리고 南寧方面에는 李宗仁、白崇禧指揮下의 廣西省回教徒가 防備를굿게 하고잇서 廈門汕頭等에서와가치 日本軍도 容易히 奧地로는 進入치안흘것이다

皇軍上陸에

廣西省民狼狽

【香港十五日發同盟】日本軍이 疾風迅雷와가치 北海附近 上陸에 成功하자 廣西省民은 全혀唐慌한模樣인데 十五日午後 廣州灣으로부터 當地 차이나‧메일紙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支那軍이 日本軍의 進路를 阻止한結果 北海西北方數哩의地點에서 日本軍과의 사이에 激戰이 展開中이라고 報道하고 다른報道에依하면 日本軍의 다른一部隊는 北海西南方 十哩地點에 上陸하여 그先鋒部隊는 支那軍에게 何等의抵抗도 밧지안코 이미北海郊外에 達하엿다고報道 하고잇다

南寧에戒嚴令!

【香港十五日發同盟】桂林來電에 依하면重慶國防最高會議의命令에 依하여 桂林西南行營에서는 十五日午後緊急軍事會議를열고 日本軍의 北海附近上陸에 對하여協議한結果 行營參謀長林蔚은 곳 南寧에戒嚴令을布告하고 市民에게 撤退를命하는同時에 南寧、梧州、柳州三地區市民自衛團의總動員을 布告하엿다 그리고防備强化必要上 軍事機關을除한 모든政府機關을 南寧으로부터 全部武鳴方面으로 撤退시켯다 그리고 六中全會에出席中인 白崇禧는 日本軍北海上陸急報를 바닷스므로 數日中에 廣西에 歸還할豫定이다

【香港十六日發同盟】桂林來電에 依하면 日本軍北海上陸의 急報에 接하여 西江方面에 駐在하고잇던 第十六集團軍總司令 蔡廷楷及李宗仁、白崇禧의 代理로서 桂林에잇던 廣西省省長 黃旭初는 十五日午後急遽南寧에 歸來 緊急軍事會議를열고 急遽對策을考究中이다 廣東軍當局은 十萬大山山脈의 險路와 南寧防備의 要衝에 國軍을 配備하고잇서 欽州、廉州를 放棄하여도 廣西省內의防禦에 努力하는 作戰에나올것이라고 支那側桂林電報는 報道하고잇다

欽州灣內의

○島完全占領

【東京灣北岸에서十六日井上、寺田同盟特派員發】欽州灣西隅地區의 奇襲作戰과 아울러 昨十五日 欽州灣內 기피進入한 山縣、平野諸部隊는 同日午後四時 同灣○島의 北側에 進出 同島守備한 敵五百에 對하여 敢然水陸戰鬪를 行하고 이어서 同六時에 同島攻略을 完了 暴風雨下의 勇士의 辛苦는 言語에 絶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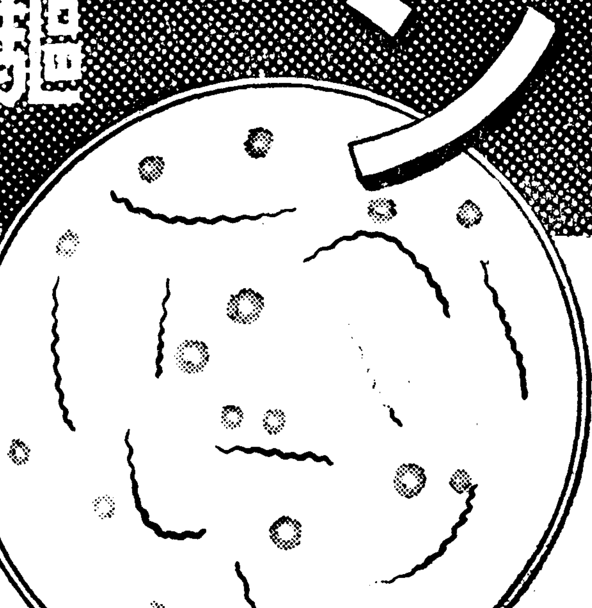
人事‧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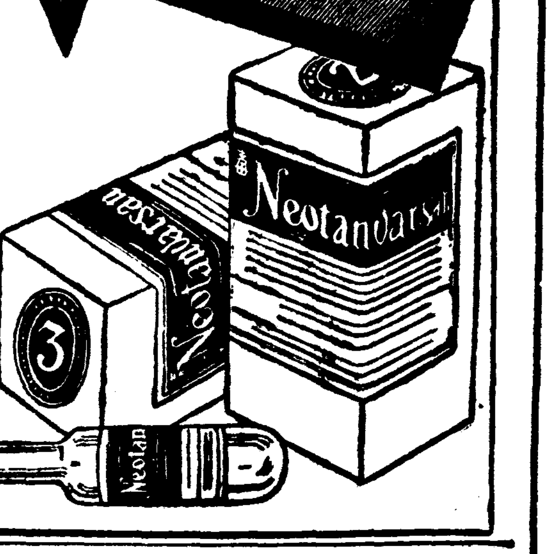
▲西村眞太郞氏(總督府圖書課通譯官)南朝鮮地方出張中十六日朝歸任

▲二見勝巖氏(京畿道警察部外事警察課)新任人事次來社

▲河口眞氏(東一銀行專務)十六日出發約十日間豫定으로渡東

靜脈注射用
ネオ・タンワルサン
國産品の嚆矢
驅黴砒素劑





二十五年의 光輝잇는歷史와 熟練된技術、完備된設備에依하야 吟味精選된ネオタンワルサン은 專門諸大家의 推奬에 依하야 年年그聲價가 益益노파진다

模造品에注意

驅黴成績의 完璧과 治療의 完全과를 期하는 臨床家諸位는 모두本劑를 愛用한다

適應症

黴毒의 各期와 黴毒으로 이러나는 各種의 隨伴症狀의 治癒와 豫防에 適합。

또 脊髓癆、痲痺性痴呆、回歸熱、一般스피로헤-데에因한 疾患 마라리아、鼠咬症、氣熱、瘴熱帶 莓瘡等에도 特效잇슴。

또 天疱瘡、扁平紅色苔癬、鱗屑疹等 砒素劑應用의 모든範圍에 良效잇슴。

包裝
一號(〇‧一五瓦) 四號(〇‧六〇瓦)
二號(〇‧三〇瓦) 五號(〇‧七五瓦)
三號(〇‧四五瓦) 六號(〇‧九〇瓦)

또 靜脈內注射不可能의 患者에 適當한 皮下注射用 ミオ・アーセミン 잇슴

또 砒素劑와 交互使用에 適當한 蒼鉛劑キフロン의 選用을願함

製造發賣元
第一製藥株式會社
本店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三丁目
支店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
出張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九十六番地
〃 奉天市大和區平安町三番地
NTO

貧血 結核 治療豫防 胃腸 强化促進
ネオ肝精 (네오)
錠劑
먹기쉬운 肝油劑製
牛膽汁肝臟配合
發明特許
藥價 三〇錠 二‧〇〇 一〇〇錠 六‧〇〇 三〇〇錠 一三‧〇〇
御試用見本及び「新藥參讀本」無代送呈 (新聞名記入申越次第)
發賣元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日本橋區本町
京城府西小門町
NK1815

經濟警察손모자라 "九·一八統制"別無効力

機構擴充、人員增加豫算이決定되지못하고잇서서 惡弊一掃는아직도數朔後

구·일팔물가(九·一八物價)를 그대로못박어매는 제한을비롯하여집세、땅세、봉급、상여금등을제한하는 여섯가지 칙령(勅令)을운용하여 나갈조선의 경제경찰은 예산관계로 아직까지진용확충정비를 하나도착수하지 못하엿기때문에 종래잇던약간의 경제경찰관으로써 그럭저럭 겨우해나가는 터인데 종래잇는 유백여명의 경제경찰관만가지고는 도저히손이미칠여가가업스므로 법령을 공포실시한지는 이미하달이 가까웟스되 사실상경제경찰의 취체조사등은 하나도되지못하고잇서서 일반업자들의 암중비약과 수요자들의 불편은막심한실정이다 즉법령만 공포하여노코 실제취체를 하지안키때문에 이법령의뒤골목으로 숨바꼭질하는 암취인(暗取引)은실로놀라고도 오히려 남음이잇고 따라서 수요자들은 법령실시전보다도 더한층 비싼 물건을 사용하지 안흘수 업게되는 현상이다 이와가튼 가장 악질의 폐해를 일소하자면경제경찰의 진용을 하루바삐 정제하는외에 다른도리가 업스므로 방금수전재무국장(水田財務局長)과 오촌사계과장(奥村司計課長)이동경에서 대장성과 그예산을 절충하기에 최선의노력을다하는 중이다 그런데 이에대한 내지의예산은이미통과되엇스나 조선의 그것은 이에대한상공성(商工省)예산에뒤밀려서 겨우수일전부터 심사절충을 개시하엿스므로 빨러야이달말경에 결정되어가지고 내월일일부터나 진용정비공작을 개시할터이다 이것은 총독부이하 각도에경제경찰계를 두는 등원천오백명의 경찰관을 대증원하는 관계상 이두달동안에 그 진용정비가 전부끗날수는 도저히업스므로 지금형편으로예상한바와가치 십일월말경에 예산이 결정되어서 십이월초부터 경제경찰진용확충공작을 개시한다 하더라도 역시일월부터나겨우 실제기능을 약간발휘하게될모양인즉 일반업자와 수요자의중간에서 발생하는악폐는 금후 수삭동안을 더 계속하게될모양이다 그런데이에 대한예산은 약이백만원으로서 제일호은 제이예비금중에서 지출하게 되는것이다

올라만가는찬꺼리 自治的으로抑壓

官民合同監視委員會를組織

구·일팔정지령(九·一八停止令)의발포로 다른물가들은 꼼작을못하게 되엿다처도 일상가정생활에 중요한관계를가진 채소、생선기타찬스거리에대해서아무런한규정도 업는탓으로 요즘이방면의 물가(物價)를보면 연일올로네할개를펴고 올라만가고잇는형세에잇다 그래서 경성부에서는 이것마저 누르고자 여러가지 연구해보앗스나찬스거리를내려누를 별별신통한 법령도업고해서 드디어 관민합동의 자치적인 억압기관을 만들어보기로결정하고 경성소매시장조합연합회를 움직여서 새로『물가자치감시위원회』라는것을 조직하고부내 십칠개공사설시장(공설다섯곳、사설열두곳)의 찬스거리가격의 감시통제를 강화하기로되엇다

동감시위원회의조직은 위원장일명、부위원장일명、위원십칠명간사장일명、간사약간명으로될터인데 위원장에는 조합연맹의회장인 산전(山田)경성부참무부장을안치하고 부위원장은 매목(梅木)경성부권업과장、그리고 위원에는 시내각시장조합장들로 망라키로되어 면밀한께 관민합동의 일대자치통제기관인 현태를 가추기로되엇다 이삼일내로 창립총회를 열고 부민의 주방경제를 위하여서 활동을 개시할터이다

小賣米斤量詐欺 今後로斷乎嚴罰

本町署不日中一齊檢察斷行

최근부내의 미곡소매업자들은 공정가격대로 쌀을팔면 이윤이 박하다고하여 소매가격만은 공정가격을 지키나 근량을 속이는사실이 비일비재하므로 관내에배급문제가량 미곡소매업자를가진 본정서에서는 근근관내업자에대한 일제검색을 하기로하엿는데 이에관하여 십육일오후에 우근(羽根)서장으로부터 동서출입기자단에게 담화형식으로 다음과가튼발표가 잇섯다

최근미곡 소매업자가 근량을속인다는것은 구체적 사실로나타나며 정보가 만히들어오고잇다 이가치 근량을 속이는것은 가격위반과는 별문제로 즉 경제경찰의 입장을떠나서라도 엄중히 취체할형법상의문제이므로 철저히취체하려고한다 업자간에는 쌀이귀하다는것을 기화로 대담하게도이러한것까지 취체하면 쌀장사를고만두겟다고 큰소리를하는 사람도잇다는데 근근일제취체를하여 근량을속이는것가튼일은 일소하여버릴 생각이다

비싸구려夜市

公定價格보다오히려비싼걸 鍾路署에서摘發處罰

서울장안종로밤스거리에 버려지는 오백여채되는 야시노점은 물건갑시싼것가치 떠들기는하나 기실그중에는 가격통제령이 내렷슴에불구하고 시세모르는 사람들의주머니를노려 공정가격보다비싸게파는 부정상인이 적지아니하다는사실을들은 종로경찰서경제경찰계에서는 십오일밤게원총출동으로 야시노점을 일제수사하엿든바 교북정(橋北町)이창섭(李昌燮=가명)외십명이 고무신하켤레에 공정가격보다 십륙전내지 이십륙전을비싸게 팔고잇는것을 발각하여모두 가격통제령위반으로 엄중처벌하엿다

神饌獻穀奉持

松炭青年團、今日渡東

오는이십삼일동경 명치신궁과 전국신사에서 대일본청년단신찬헌곡봉고식(神饌獻穀奉告式)을거행하는데 금년부터조선청년단이 이에참가하기로 되어경기도 평택군송탄면(平澤郡松炭面)청년단이 지정되어 단장동군 서정리(西井里)소학교장 송기정웅(松[illegible]正雄)씨동단원 김현욱(金顯旭)(二二)이순우(李舜雨)(二三)등여섯명이 금년보통경(?)(寮耕)한신찬을밧들고십륙일오후네시 경성역발아까쓰기로동경으로 떠낫다 출발을압서 송기단장은 다음과가치말하다

금년은 한재가심한년계로 각지방의 각청년단에서도 헌곡을하고 잇섯는데 매년 명치신궁과 전국신사에까지 내지의 각청년단에서는 조선의 청년단이 참가하게된것은 광영으로 생각하는바이다 (사진은 경성역에서) 이번이 처음이고 더욱 우리

朝鮮映畫令

明年一月엔期於實施

영화제작을보러 사영에 이르기까지 강력한통제를 목적하는 영화령(映畫令)은 내지에 순응하여 조선에서도 실시하고자 총독부에서는 재작년부터 영화령안을 만들어 지난구월초에 법제국에 회부하엿든바 물까정지판계법령때문에 심의가늦어 요즘에야 겨우 심의에착수하엿다 한편 서행규층은 육십이개조에 달하는 복잡한것으로 심의에 회부하엿스나 이것역시 다른법령때문에 이때까지 심의를하지못하고 십이월내나 심의를 하게되엇스므로 영화령실시는 예정보다 훨신늣게되엇다 총독부당국에서는 명년일월일일부터는 기어히 실시하여 혼돈비약한 조선영화계의 숙청공작에 매진하고자 준비를 바삐하고잇다

紫煙에서서린憂鬱

今朝、담배갑이上으로煙氣처럼뿜는嘆息

십륙일로 담배갑슨 또다시팔할가량이 뛰어올라 이날아침에는 청명하나 자연당(紫煙黨)들의 얼굴에는 짙짓우울한비치 떠돌고잇다

담배갑시 한번오르면 담배를끈는다니 『피죤』을 피우든사람이 『미도리』를피우는등 겨울떨어티려보나 이삼일만지나면 비차도다시 그전과 마찬가지종류와수량을 피우게되는것이 담배피우는사람의 약점이니만치 우울한비치 떠도는것도 무리는아닐것이다 소화십사년도에 내지의 담배갑이상에따라 조선에서도 이할가나 담배갑슬올렷는데 이번것은 사변에따르는재원을 구하기위한것으로 소비세에준하는것이어서 일반물가와는 달리취급되는것이 큼이하겟이다 따라서 이번 담배갑이상과 『일팔가격』과 관계를맷서생각하는것은 타당치 안타는것이 당국의 의견이다 또한 이번가격인상은 시간이 쫌느젓기때문에 소지동으로 자처하는사람들의 매점(買占)은 별로업섯스나 구십전바게 못납기게되엇다 이에따르는이윤의증감과 아프로담배갑시 또올라가느냐하는문제에대하여 전매국(內務)담배게장은 다음과가치말한다

담배갑을 올린것을 두고 소매상들에게는 이익을본사람도 업지안흔것이나 재고품판게 급을 바든소매상이 업는것이다 그러나 담배의 매정(買占)은 별로 업섯스나 제고품판게 한본보것이다 그러나 담배를파는 사람에게는 적은일이아니다 ▲그런데 왜 또담배갑슬 올렷느냐 당국은 말하기를 국가재정의 수입을 늘리기위한것이라고 ▲국가재정의수입에서 주되는것은 세금이잇고 세금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잇지만 세금이외의것 소위전매수입이라는것이잇다 ▲담배가 그것이요 또 조선은 홍삼 소금가튼것인데 ▲전매의동오국가의 수입을 위해서 할때도잇고 백성에게 원만히이익 되도록하기위하여 하는것도잇스니 소금이 그런예에 드다할것이고도 이번 에는제도는잇것도 민간의것을 나라에서 전부사가지고 일정한가격으로 전매를하자는것도 그런 예이다 ▲그런데 전매한다는것은 결국은 도맛고 물건을파는것임 에틀림없다 그래서 거기서당한이익을 엇도록하는것인데 입바를까가 오르면 전매하는물건도따라서 올리지안흘수 업는것이다 이번담배갑을 올린것도 일반물까가 영향한것은 아니고 ▲이것이 만일 전매품이아니고 민간의 상품이엇드면 구·일팔가격』의취체를바닷슬것이다

水害救濟義捐

京都中學在學生 卅一圓寄託

금년의 중남조선의 한재는각처동포들의 동정을사고잇는데특히 라한에나아가 학업을닥는생도들의 발로은 일반의주목을끌고잇다 경도중학(京都中學)재학중인 조선재학생일동은재해중인 조선재학생일동은 멀리경도중학(京都中學)에고잇다 재지구제금으로 삼십이원을보내왓

安東縣民學校卅一圓義捐

만주 안동성립제일국민고등학교(安東省立第一國民高等學校)교장 등기(藤崎)씨와 명재억(明在億)씨는 조선인학생일동으로부터 한재구제금으로 삼십일원을거두어 본사안동현지국을거쳐 십륙일본사에 기탁하여왓다 전을 거두어 십륙일오후 (?)

素人이鑛山發見으로 큰돈버리

福井縣瓜生村의박가인대와川底가 優良한砂金鑛床이잇슴을發見하고一躍有名하게된 瓜生(?)平野雄君은 一介의靑年으로 鑛山의 專門家는아니나 少多鑛山知識을 가진것이 大發見이되엿다 豫前부터日本은 寶物의國이라하여 아직貴重한鑛物은 野山의山野에도 田中에도埋藏되엿다 그러나 어떤鑛物이 가치잇는지는 鑛山知識의有無가成功과失敗의分界이다 거기서 鑛山의發見法은砂金이나 鑛物의地質鑛山關係法規等을 極히 平易하게解決하여 素人이라도알기 쉽고 實用되도록한新刊書 『鑛山發見の實際知識』(定價一圓八十錢)東京市中野區小瀧町四二東亞工業會에서發賣함 希望者는葉書로申込하시면 代金은着後로送本함 金鑛外重要鑛物標本 一組廿種을無代添付

廣告

라디오 第二放送 ▲午後五時(?)공이(七) ▲六時三〇分 講演 ▲七時三〇分 講演 ▲八時 野談 ▲八時三〇分 京畿歌謠 ▲九時俗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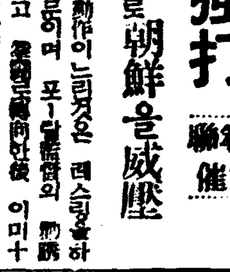
待望의日米對抗拳鬪戰迫頭

올림픽米代表 「킹게이드」의强打 戰術的으로朝鮮을威壓

本社·拳聯 共同主催 ②

헤이러-

라이트級=「론·헤이러-」選手(二二)는 一行中에서 不運의連敗를 喫하여 雪憤하려는野望이 가득하나 鄭福鎬君이나 또는 韓龍洲君이 對戰할터인데君은 動作이 느린것은 레슬링을하기때문이며 포-틀랜드에서의 戰績은 이미十六勝三敗의戰績을 남기엇다 비록東京에서는 森君에게 第一라운드 一分四十五秒에 KO로을 머금엇다하나 大阪에서는 森君과 再次對抗에 完全히 리-드하면서도 判定으로 물러섯다 身長이 五尺七寸이며 體重은百三十五封度인데 이번 遠征中에서 東京에서 森君과 對戰하여 第三라운드까지 리-드하면서도 無勝回로 마치엇는데 카-윌君은 左右크로스·카운터-가 特技이며 技術的으로 變化만흔 빽써-이다 相對는 韓龍洲君이 될는지 또는 鄭福鎬君이 될는지 멤버-交換이 잇기前에는 豫想할수업스나 朝鮮選手의 善戰을 許치



카-윌

「월스·카-윌」選手(二二)는 東京에서 켈리포니아州의 메더-級選手權을 차지하고잇다 君은 年齡이 多少늙엇다고한다

킹게이드

웰터-級=「짐·킹게이드」選手(二一)는 六尺二寸의 長身을柔軟하게 움직이면서 左右스트레-트의 連打는 威脅的편치가 잇다 米國의 興味를 獨占하엿으며 「이라이드」와 「카-윌」君의 人氣의焦點이 안흐며 心치안는다 君은 산노제大學一年生으로 本國生活은 三年間이엇고 三十二勝三敗二無勝負의 빗나는戰績을 남기엇스며 太平洋沿岸의 全大學選手權大會에서 百三十九封度級의 朝鮮拳鬪界에 强打者이다 現在의身長은 五尺九寸 體重은 百三十五封度이다

在하여잇다 東京에서 李寛雄君을 가엽게이긴것으로보아 이와對戰할李鏡錫君이 킹게이드君의牙城에 어데까지 肉迫할것인가에 興味를 이끄는데 身長의大差로 李君은리-치에 눌러서攻擊의 餘裕를 엇지못할것으로 豫想되나 실로원쳐이 게임이 될는지도 모른다 君은 體重이 百四十七封度이며 只今까지의 戰績은四十勝六敗로 第十二回世界올림픽 大會米國代表로 選拔된有名한 빽써-이다

以上과가티 米國軍의陣容을紹介하엿거니와 朝鮮選手는 모두 意氣滿滿하여 猛練習을거듭하고잇는데 포-틀랜드監督은早速 十六日에行하는 朝鮮選手의練習光景을實際로 見學하고 正式으로 멤버交換을하자는懇請이잇서서 朝鮮側에서는 이를快히承諾하엿다 이歷史的게임을 압두고 臨時한豫想이 떠돌고잇는바 멤버-順이 確定되기前에는 더욱이豫斷키어려우나 朝鮮軍의善戰을 豫感케하는데 이번審査部는 東京、大阪에서 審判問題로잇섯스니만치 嚴格하고도 公明正大한 審査를할것은勿論이려니와 國際的게임에 遺憾됨이업기를 期하고잇다

正直이매맛는世上

挾雜會計指摘햇다매마진女給 憤김에飮毒自殺(未遂)

손님을위해 정직한 셈을하려다가 『뽀이』에게 매맛고자살하려던 여급—십오일밤열두시경 종로명성(明星)『빠-』의여급부내인사정(仁寺町)이백오십오번지 김옥려(金玉麗=가명)(二二)는 칼모친을 집안사람이 알고 곳견한결과 생명은 구하게되엇다 자살원인은 십삼일밤 지(?)의원으로 데려다가 응급치료를 한결과 생명은 구하게되엇다 『홀』에서 손님이 술을먹엇슴에 대하여 『뽀이』김용복(金龍福)이 세병으로 셈을하엿스므로 두병이올라고 정직하게 말하엿다가 『뽀이』에게 매를마즌것이 분하여 『경직이 통하지안는세상』을 하직하려던것이다

物價(燃料)委員會

十七日開催、公定價格答申

연료의수급을 원활히하여 연료기근을완화하고자 총독부에서는 십칠일오후한시부터 제삼회 물가위원회 제사회제사분과위원회(연료분)을열고 석탄、연탄、숯、장작의 각공정가격을신중검토하여 서안을어더가지고 이십일오후한시부터 제일회의실에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공정가격을 답신하기로될터이다 석탄에 대하여는 가정용탄만 현재공정가격이잇다 공장용탄은 업기때문에 가정용탄이 공장용탄으로흘러 석탄기근을 격화하는일설이 비추어 공장용탄의 공정가격을설하고 현재각도에서 공정가격을 개정하며 수송관계로 현재각도에공정가격이 잇기는하나 싸기때문에 지장이 잇스므로 이와가튼실정을 참작하여 공정가격을 개정하며 다음에는 연료난에첨을어더 먼(?)장작의 가격조정을 하여 수급원활을 도모하려는것이데 장작은 나무조류 규격(規格)등 딴게도 기술적으로 상당한곤란이 예상된다

册홍천少年

부내 명륜정(明倫町)사정목 칠십오번지 잡화행상하는 황봉진(黃鳳鎭)(一七)은 이십일오후일곱시 경학(?)에 (?) 영창(永昌)서관에서 화영(和英)사전한권을 도적하여가다가 점원에게 붓들려 종로경찰서에 인도되엇다

慰問袋二千

元山에서發送

『元山』제실구사단에서는 원산 대를 판(?)하고 각도시에서 모집중원산에서는 총후인의 서심의결정 이천개를 보내엿다

籠球聯盟戰

漸次로佳境에 三分一의게임마친

朝鮮中央基督教青年會主催 제삼회 중등농구연맹전은 지난十一月十日부터 종로청년회 실내『코-트』에서 中等第一部 第二部合하여 十七個校의參加로 진행되여온바 十五日로 同聯盟戰日程의 三分之一에 該當하는 五日間을지나고 오늘도 第六夜를마지하게되엇다 각參加學校의 이미『게임』을 二、三次式은 마치게되엇슴으로 지난五日동안의 各校戰績을 살피어보고 中等第一、二部를 通하여 아푸로 白熱戰이 豫想되는『게임』은 中等第一部에는 京師對中東(十七日) 儆新對京師(十八日) 大東對徽新(二十日) 徽文對培材(二十日) 協實對京師(二十二日) 培材對協實(二十三日) 儆新對京師(二十三日) 大東對協實(二十七日) 戰等이고 中等第二部에는 養正對普成(十七日) 鐵商對養正(二十日) 英彰對鐵商(二十二日) 普成對英彰(二十三日) 東星對英彰(二十八日) 養正對英彰(二十七日)戰等이다 그리고 中等第一部의 全勝校는 大東과協實의 兩校이고 中等第二部의 全勝校는 養正、英彰、鐵商의三校이다

飮食店、料理店서도 雜穀밥을팔라!

精動京城聯盟에서 各方面에勸告狀發送

節米

공설시장다섯곳 사설시장열두곳합게 열일곱곳의 공사설시장에대하여 금후로는 잘한맙에반드시 보리한되씩을섞거서 팔아야한다는 업명을내린 경성부에서는 다시이운동의보급과 철저를기하고자 고교(高橋)부윤이정동(精動)경성연맹이사장의 자격으로 전경성배화점 요리집、음식점가조합에 대하여금후 손님의식사에대해 서는반듯이보리나기타잡곡을 석근밥을 내어놋록하라는 권고장을내어 이방면의 협력을 구하기로 되엇는데여게대해서 연맹이사장 고교부윤은 다음과가치말하엿다

영양으로도 또 맛으로도 한데 쌀이 지금처럼 귀중할 한 시절에 반대할사람은 업슬줄로안다。문제는계급이고 습관이다 입에만 부치어나면 문제는업다 나는벌써오래전부터 잡곡밥을 먹어온바 밥에 반드시 보리를 석거먹어오는데 몸도이러케 조코 튼튼하다 이제는 다른 힘도 이제는 다른 몸은 업에 못당청도이다 기타 음식점에서도 솔선 후식을 실시해준다면 일반부민의 후식에 대한 인식에 얼마나 도움이될지 알수업다 그래서 경신총동원 경성련맹이사장의 자격에서 권고장을띄우기로 한것이다

東山莊朝鮮住宅分讓
場所 敦岩町
價額 土地建物共一口 四千圓以上一萬圓迄
東京建物株式會社京城支店
黃金町二丁目五五番地·電本1381·1681

寫眞機及材料
中古機械及レンズ 買·賣·交換
現像燒付引伸引受
京城鍾路四街
東亞寫眞材料商會
電話②七九八番 振替京城三五(?)番

尿의病과 △性病……에
早期自療法『못치는法』
(無代進呈)

朝報案內
말더듬이 訥言에苦痛하는 분은 반다시 全治될 正規則書를 京城府化町二〇 (?)
藥製師採用 希望者至急來談 府西大門町二丁目七〇 中央製藥社
看護婦採用 經驗有無不問 京城府內 (?)
店員採用 年齡二十五歲以上 (?)
タイピスト養成 五名限無料 (?) 京城タイプライター商會
朝鮮日報咸大勳先生大作!! 조선일보연재의기소설 長篇小說 暴風前夜 定價一圓(?) 發賣 平文社
寫眞付印章 現代科學の粋 寫眞付印章製作所 主 李浩(?) 電話光化門四三五四番

ナショナル 乾電池 松下乾電池株式會社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樂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超强力鎮痛劑 スビナール 注射液 一〇管入 五〇管入 一〇〇管入 製造元 ライオン藥業社製藥部 發賣元 大陸公司藥品部 京城府松町七四 振替口座京城二二七五六番

大學病院 模範方劑 調劑有效確實 保證 RPT KAZEPIRIN 解熱完全 熱 風 カゼピリン 感冒·頭痛 痰咳·熱 定價 貳拾錢 五拾錢 壹圓 ★ 赤玉固腸丸本舖 樂天堂製藥株式會社

歌謠曲의새로운스타일 원망스럽소 他面 黃琴心 上海아가씨 朴丹馬 KJ一二五三 빅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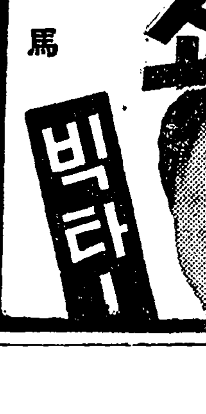
痛ミヲ止メ 三大特長 一、本劑ハ身分證明書等ノ緊縮 二、本劑ハ藥効迅速 三、本劑ハ鎭痛·鎭咳·鎭痙 九奮ヲ鎭メル 京城新藥社 京城府西大門町 ネオナルモヒン NARMOHIN モルヒネ·ヘロイン·コデイン代償 鎭痛·鎭咳·鎭痙·新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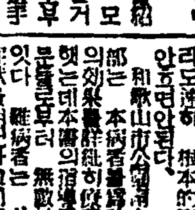
燒酒藥酒再製加入原料大推奬 한잔 마시면 元氣旺盛 精力强進劑 參茸トニク 京城理化學研究所 振替京城七〇〇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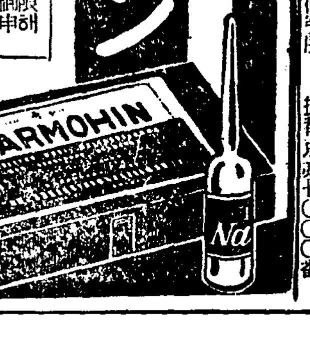
東亞工科學院生徒募集 京城府慶雲町八八番地 電話(光)三八四五番

茶房의 푸로포즈 李蘭影 그리운그대 金福子 오케-레코-드 OKEH

産前產後に 喜谷實母散 婦人良藥







概說 新文學史 (六)

林 和

第二章第二節

C、聖書飜譯과 諺文運動

基督敎의 輸入이 朝鮮近代化의 端初가 되엇이란지 또한 新敎育의 嚆矢를 지은것이란지 或은 基督敎의 思想이나 그것이 가저온 諸文化가 新文化形成의 剩餘이 되고 나아가 그것을 培養한것은 否認할 必要를 늣기지아니하나 이제 敎會의 諸刊이 新文化運動의 形式인 諺文文化를 開拓한 功績을 생각하면 實로 기픈 感慨를 禁할수가업다.

甲午改革이 公文書에 漢文混用體를 許認하기까지 朝鮮語와 諺文은 다만 버려진 그 狀態에 지내지 안엇다. 새時代와 새文化가 무엇보다 먼저 漢文으로 부터 諺文을 解放하는 곳에서 文化改革의 出發點을 삼은것은 그것이 實로 『르네상스』的 意義를 가젓기 때문이엿다.

새時代는 먼저 새時代에 適應한 表現形式을 가저야되엿섯다. 이것의 오래 버려저잇던 朝鮮語와 諺文에의 回顧이엇다. 그러나 甲午의 改革精神도 漢文으로부터 곳장 純諺文으로 도러오지는 못하엿다. 諺漢文混用體(國漢文)에는 明白히 甲午改革의 中世에對한 半妥協的態度가 숨어잇섯다.

그러나 民衆은 小說에 노래에 모두 純朝鮮語 純諺文으로 自己의 意思를 表現해오고 文化를 가지고 잇섯다. 이러한 民衆의 文化는 諺文文化의 支配下에 일홈도업시 埋沒되어잇슬때, 基督敎는 自己의 經典을 諺文으로 飜譯하여가지고 朝鮮에 드러온것이다. 勿論 이것은 愚昧한 男女에게 自己의 宗敎를 宣傳하기 爲함이나, 左右間 이基督敎가 諺文復興의 恩恢할 先驅가 되것은 事實이다. 朝鮮에 일즉부터 드러온 基督敎는 周知하는바와가치 天主敎로 처음엔 勿論 利瑪竇의 『天主實義』와 가튼 北京, 上海等에서 刊行한 漢文敎書가 드러왓스나 一八六○年代(哲宗末年)엔 벌써 諺文敎書를 刊行하기 시작하엿다.

昭和六年九月에 열린 『敎區設定 百年紀年 朝鮮天主敎史料展覽目錄』에依하면 一八三九年에 죽은 『앙베르』(Laurent Imbert)主敎가 飜譯하고 『베르누』主敎가 一八六一年京城서 完成刊行한 『諺文天主敎聖敎工課』三册이 最古의 刊本이라한다.

이해는 甲午를 溯하기 三十三年前인 哲宗十二年(文久一年)으로 朝鮮이 아직中世의 꿈속에 잇슬때다. 이때 敎烈한 迫害下에 秘密히 刊行한 一個 宗敎의 布敎書가 朝鮮에 잇서 諸文化의 燈火가 되엇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感慨기픈일이다.

그다음 一八六四年 『베르누』主敎監督下에 『[illegible]』(Antoine Daveluy)가 飜述한 『諺文聖敎大典』一册이 京城서刊行되고 同年엔 中國와잇던 宣敎師 『[illegible]』(Luigo Bongo?)의 著述을 『[illegible]』가 飜譯하여 『[illegible]』가 刊行한 『諺文主敎要旨』二卷 一册이 亦是 京城서刊行되고 一八六五年엔 『[illegible]』의 飜譯한 『諺文天主敎敎禮規』一册이 亦是 京城서 刊行되고 同年에 一八六六年에는 有名한 『天主實義』四册외에 宣敎師 『[illegible]』의 飜述을 一八六六年에 殉敎한 『[illegible]』六册亦是中國에 잇던 宣敎師 『[illegible]』의 『[illegible]』十二册의 原著 『[illegible]』의 諺譯이 爲本으로 되엇다.

이외에 天主敎關係 『[illegible]』一八八○年刊인 『[illegible]』(一八九○册)一九○六年에 羅刊하고 初版年代가 未詳하나 이밧게도 적지안흔 刊敎書가 잇슬것이다.

이外에 主敎의 『[illegible]』(一八八○年刊)『[illegible]』이 朝鮮人敎徒 崔智益의 助力으로 二十年을 걸려맨든 『[illegible]』(一八八○年 橫濱刊)이 잇는것이 크다.

그外에 『[illegible]』과 가치 文法書로서 一八八○年에는 一孤村氏의 諺解가 未安한 朝鮮에 잇스면서 朝鮮典籍의 手寫本의 넘엇다 한다 그들의 苦心을 짐작할수잇다.

文藝時評 論壇의 動向과 作家 ❶

安 懷 南

『文章』九月號所載 林和氏의 『小說의 主人公』과 『人文評論』創刊號 發表된 崔載瑞氏의 『性格에의 意欲』은 最近 나에게 만흔 示唆를 준 評論이다.

小說

을 쓰되 무엇을 어떠케쓰느냐하는것은 우리의귀에 저주文句이라 이제새삼스러히 吸啖한다면 陳腐하기 이를데업슬것이나 그래도 依然 作家들을 重壓하고 잇는 問題이다.

이것은 作家들뿐만 아니라 批評家들도 마찬가지이어서 文學이가지는 永遠의 『테-마』이다 그런데 作家는 恒常 作品속에서 『무엇을 어떠케 쓰느냐』하는것을 單一化하여 생각하는것이나 批評家는 그러치안코 그것을 分離해서 어느때는 『무엇을』하는 한가지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느때는 『어떠케』하는 한가지만 이야기하기도한다.

『批評精神의 喪失과 論理의 獲得』이라는 李源朝氏의 글에서 批評하여 本紙에 連續發表된 尹圭涉氏의 『批評의 問題』는 全혀 『무엇을』하는것을

說明

하기위한 論文이엇다. 두분의이야기를 기다릴것도업시 現今文學의 第三의論理 그代表하는 氏는 批評이 沈滯하고 作品이 低調하다고 너무나 말할것이다 共認하는바이다.

李源朝氏는 『市民社會의 리베라리즘과 게다가 傾向文學의 末期를 격거온지라 지금우리의 立場이 소시알리즘은 말할것도업고 리베랄리즘까지도 容認하지 아니하면 안되겟는데 그러타고 사람마다 同一한 步調를 가지는 새로운 時代意識이나 社會意識이 樹立되는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하엿고 尹圭涉氏는 어느月評속에서 『生活이 周知하는바와 가치 較儀하고 逼迫된

現實

에 부닥처 잇스매 日常生活이라는 愛慾의問題를 보다 高次的인世界에 끄러올릴수 잇스며 如何히하여 보다 노픈 價値를 賦與할수잇슬가 바꾸어말한다면 作家自身이 그것을 現實에서의 遊離가 아니라 現實을 執拗히 부등켜안코 如何히 꾀돌코나가는가하는 高邁한 作家精神에 잇다고본다』하엿다.

李源朝氏에게 비긴다면 尹圭涉氏는 『엇더』고 告白하는대신에 『잇서야겟다』하는 意欲을表示햇다고볼수잇다. 이번 『批評의 問題』에 잇서서도 第三의立場의 作質을究明하여 그獲得의方法으로 批評은 認識論的活動이라고해서 批評의基準을 批評體系에 內包된世界에서 求하라고하엿다.

그러나 나는 率直히 告白하거니와 尹圭涉氏의 그러한 認識體의解說은 아러드를수가업섯다. 그것은 依然히 李源朝氏가 引用한 구르몽의 『倦怠의 探法은 倦怠보다도 더 倦怠로웁다』하는말을 잘 說明하여주는

倦怠

의多樣性作의 그 하나밧게는 아무것도 아니엇다.

上記 林和氏의 『小說의 主人公』과 崔載瑞氏의 『性格에의 意欲』이 나에게 만흔 示唆를주엇다는것은 두論文이 『무엇을』보다 『어떠케』의 方法을 具示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미더진다. 假令 物體(무엇을)를 담으려면 한개 器具(어떠케)의 形式이 規定되듯이 가장 올케바르게 合理的으로 한 器具(어떠케)를 製作하여 노흐면 거기에는 어떠한 物體(무엇을)든지 너흐수잇고 또 너허지는것이 아닌가.

아따 이러케 내가 말하는것도 文學原理의 가장 貫串한條作을 빼트리고 犯하는 어리석은 誤謬일른지 모른다. 그러나 批評의 第三의立場 그基準이 서질못하여 作家에의 아무 領導性이나 被斷作을發揮하지못하는 世代에잇서서 小說에는 主人公이 살어야 한다는등 文學에는 옳흔

性格

이 創造되어야한다는등의 『어떠케』의 適確은 重且大한 唯一의 우리 文學의것이 아닐까부냥

勿論 장차 조흔 良服을 保持할 香氣한 洋服감을 맨드러야 할터인데 이건 衣服이나 거러를 洋服감을 製作하여서는 手法과 技巧와 形式이 제아무리 華麗하고 기가마켜도 쓸데업스리라 그러나 지금批評의 『어떠케』의 適確에는 亦是 그材料와 構成과 貌樣을 보아 이건 洋服다 이건 洋服감이다 하는 斷定性과 洋服감을 洋裝으로 고치게하는 指導性이 잇지안흔가 하는것이다. 主人公과 性格의 檢討外에 昨今 東亞日報에 發表된 崔載瑞氏의 『小說과 民衆』속에도 作家가 攝取할 조흔 要素가 包含되어 잇다 (계속)

世界의 귀

뭇솔리니首相 『텔레비』에 熱中

【羅馬發同盟郵信】伊太利政府는 歐洲戰亂에 모든힘을 하면서 國內의 文化施設改善에 全力을 기우려서 一九四一年 羅馬에서 開催될 萬國博覽會까지는 文化와 科學을 總動員하여 모든 文化施設을 完備하려고 着着 準備하고잇는데 特히 『테레비죤』의 實施이는 科學伊太利의偉力을보일것이라하여 먼줌이나 熱意를보이고잇다 多藝多能한 『뭇솔리니』首相은요지음 首相官邸인 『빌라·토로니아』에서 市外放送局으로부터 放送된 『테레비죤』의受信을 스스로試驗햇다 그結果는 極히조아서 政府는 羅馬市內十個所에 受信裝置를 設備하기로되어 새해부터는 一般化하려고 힘쓰는중이라한다

孫子講義

李 昇 圭 (卄一)

故로善戰者는立於不敗之地하고而不失敵之敗也니라

【註】杜牧이曰不敗之地란者는可히이길피를하여서 敵으로하여금 반드시我를敗치못하게함이오 不失敵人之敗란者는 敵의可히敗할만한形勢를 엿보(窺伺)아서 쫌업도機會를 일치안는다는뜻이라

【通解】故로善戰하는者는 敗하지안는땅에 서(立)잇고 敵의 敗함을 노치지안는니라

是故로勝兵은先勝而後求戰하고敗兵은先戰而後求勝이니라

【註】張預ㅣ曰計謀가먼저 이긴然後에 軍師를일으키는故로 싸운즉이기고 計謀가업시 먼저 싸워서 이기는것을求하는者는 恒常敗하나니라

【通解】이런故로 勝兵은먼저 이긴後에 싸움을求하고 敗兵은 먼저싸운後에 이기는것을求하나니라

善用兵者는修道而保法이라故로能爲勝敗之政이니라

【註】杜牧이曰道란者는仁義也오 法이란者는法制也니 用兵을 잘하는者는 먼저仁義를修理하고 法制를保守하여 敵으로하여 我를 이기지못하게하고 敵의 可히敗할틈을엿보는것이니라

【通解】用兵을잘하는者는 道를修하고法을保한지라 故로能히 勝敗의政을하나니라(我軍이 勝하고 敵人이 敗하는政이라)

兵法에 一曰度이오

【註】賈林이曰土地를料度함이오

二曰量이오

【註】賈林이曰人力의多少와倉廩의 虛實을 酌量하는것이라

三曰數오

【註】賈林이曰 算數也니 數로써 미루어보아 衆寡를 可히알것이오

四曰稱이오

【註】賈林이曰 이미衆寡를알고 衆하여 彼我의 德業의 輕重과 才能의長短을 아는것이라 (即比較하여저울(稱衡)질하여 봄이라)

五曰勝이니라

【註】賈林이曰 勝敗의 政이니 用兵의法은 마땅히 이五事로써 稱量하여 敵의情을 아나니라

俗謠收集

同福行 ❶

方 鍾 鉉

장마인듯 비는 부실부실나리어 끄칠것갓지안타 午前八時半에 同福面事務所로 面長을 차저더니 意外에 病中이라고집으로 가서보라고한다 和順郡守가 마침 城大同窓인 玄錫虎氏이엇스므로(至今은 興亞院事務官이되어잇다) 이 玄郡守의紹介狀을 가지고 面長宅을차저것더니 六十七歲의老齡으로 病席에서 만나주니 아모리 일이重타기로니 끄러옴을 끼침은 참으로 미안하엿다 親切하게도 그事務所에서 일보는 吳然景氏를紹介밧게되어 이同福의 모든 事情은 全然히 이 吳然景氏의 努에 依하여 求得한것이라고하겟다 特히 同福邑에서 民謠를 採集한데잇서서는더욱 그러하다 吳然景氏의 案內로 寶泉里가는길南쪽에서 南宮德을튀저보고 그洞里에 드러서면서 李某家에 傳해오는 異曆二年의 年記를 가진 家系譜를보앗다 또 이同福의 特産인 麻布에 關한 意見을 드르니 春分에 播種하고 小暑에 刈取한다고한다 대궐다 麻葉을 落下시켜서作束하고 삼굿을하되 잔돌을 물에 달게하여 그우에다 麻束을 세우고 끄틀을볼 부어서 삼을 익킨다 이것이近日에는 改良되어 큰鐵板의大釜에다 삼개되엇다고한다 이리하여 삼배(麻布)를 짜내기까지는 相當히 품이 드는順序가잇다

먼저 이近方農村에서 이거가는 조(粟)가튼데 無數히모혀드는새떼를 멀리 날려쫏는때 부르는 새쫏는 노래가잇스니 이러하다

후여 후여
새야 새야
솔수 고부 녹두새야
녹두바테 안지마라
네나 내나 까묵을꺼
하나업다
누른밥 딱딱 후여

몸레노래를 보면 이러하다

잠아 잠아 오지마라
씨어멍이 눈에나븐
남의눈에 절른난다
몸레는 술련줄고
씨앗이는 귀는줄고
장든놀레 病이 나믄
창패꼭이 약일러라

며느리노래를 보면 아래와갓다

알랑가튼 씨어멍이
뒷동산 살가지나
물어가고
악대가튼 씨아바니
인왕산 호랭이나
물어가고
참새가튼 씨누년은
더르나 달카
차갓소
감창시야 감창시야
왜틀놀고 감탈아라
고추가튼 시어머니
열매차고 바레갓다
서넘서넘 사촌서넘
나와다고 기념마소
잘한되만 재첫스면
성도꿉고 나도꿉고
꾸러울이 남엇스면
성소주지 내소준가
누론밥이 남엇스면
섯개주지 내개준가
서네집은 잘사라서
놋접시로 당장차코
우리집은 못사라서
밀두꼭 뒤더서
당장 싯는다

新郞 新婦問答이 이러하다

『新婦』어제오는 새신랑은
마상바람 끈하기도
활활떠러
잠마잘라 왜것는가
『新郞』네나 얼마 여지덥사
오는녀 잠울자라
『新婦』문명기 하삼소매
반만들고 나를보소
문명기 하삼소매
반만들고 내다보니
떠오르는 반달이라
『新郞』다카다카 울지마라
남아남아 새지말아
『新婦』오는밤만 밤이런가
오는밤만 밤이런가

달

權 煥

銀쟁반가튼 동근달이
색감안 구름을 헤치고나왓다
밝고 힌비치 외세게를 골고루덥혓다
모든 물건우에 아름다운 銀가루를 뿌려주엇다
잔잔하게흘러가는 漢江의물결우에도
말업시우뚝솟아잇는 北岳山바위우에도
맑은 피아노곡조가 흘러나오는 洋館집창은지붕우에도
病든늙은이의 앓는소리만 가늘게 들리는
얇은초가집 거적문에도
푸른 커-텐을 헤치고 밤늦게 戀人을기다리는 處女의 가슴에도
『만주』상자를 메고 차운거리를 다니는
苦學生의 낡은 모자우에도
뼈숙하게 솟은 天主敎聖堂에도 고요한 墓地우에도
蕭條한 花園우에도 엉컬더러에도
달이여—
나는 너를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
그것은 네가 處女가치어엽븐 때문도아니다
銀쟁반이 탐스러운 때문도아니다
너를보며 울고노래하는 청영고 幸福스러운詩人도아니다
나는 故鄕도업다 愛人도업다 追憶도 耽美도 모른다
다만 너의 맑고힌비치
아무런 驕傲도업시 阿諛도업시
또 아무런 『에고이스틱』한 吝嗇도업시
웰—세게를 골고루 골고루 덥허주는 때문이다

新刊紹介

▲光化 九月號 發行所 上海輯子路二五八 上海居留朝鮮人會出版部 定價十五錢 送料二錢

▲朝鮮行政 十一月號 發行所京城府太平通二丁目四三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振替京城三三○二番 定價五十錢 送料二錢

열마나 두려운 瘀血의 所爲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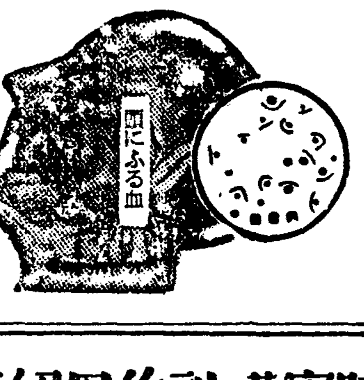
아! 果然그러타! 이제야 아럿다

頭重、耳鳴、肩臂痛과 動悸되며 허 땅기고。

手足의 麻痺와 冷하고 아픈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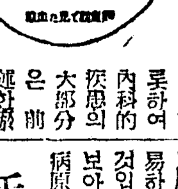
괴로운것이 腦溢血의 前兆이면

그러면 어떠케하면 治癒될가



차츰 腦溢血의 季節이 된다。그리고 昨今과가튼 氣壓의 變動期에는 血壓의 動搖가 激甚하므로 普通보다도 열마간 血壓이 노픈분은 此際에 充分한 注意가 緊要하다。元來 血壓이 노파지는것은 瘀血(病毒、酒毒、煙毒等의 綜合毒)로 해서 血液이 濁하고 血行은 妨害되어 管이 狹搾하게 되는탓이지만 더욱 頭腦의 잔動脈은 腔그 害毒을밧는 程度가 比較的 速하고 또 强하므로 조금한 誘因이라도 잇스면 쉽게 破裂된다。그러나 血壓이 노파지면 頭重、耳鳴、肩臂痛을 비롯하여 前記와가튼 症狀이 나타나므로 其症狀中한가지라도 잇다고 생각하는분은 放心말고 瘀血을 除取하고 不幸을 未然에 防止할것이다。

血壓만 내리면 念慮無用、病苦도 잇고 健壯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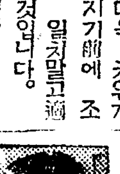


腦溢血을비롯하여 內科的 疾患의 大部分은 前述한瘀血이 直接또는 間接의 原因이므로 瘀血만完全히 除取하면 高血壓은 自然히降下하고 괴로운症狀도 消去되고 두려운重患을 未然에防止할수잇는것입니다。더욱 치위가 닥처오는昨今 너머지기前에 조심으로서 이機會를 일치말고 適當한治療를 생각할것입니다。

그러면 어떠케治療할것인가 瘀血을除去하기爲하여 예부터 經絡과吸角으로 瀉血하는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手段方法이講究되엇지만 하여튼瘀血은 體內기피潛伏하여잇슬때가만흠으로 單只局所的인 對症療法으로는 容易하게 그目的을達하기가어려운것입니다。當研究所는 이點으로보아서 古方醫學의實際的인 治病原理와現代醫學의長所等에再檢討를加하고 또 모든角度에서實地的인 研究를거듭하여 이것이면조흐리라는 確信을가질수잇는 瘀血療法의創見에成功하엿습니다。이新療法發表以來 實驗하신분들에게 歡迎과好評을밧고잇습니다마는 괴롬을밧는분은 꼭 한번試驗하시어서 얼마나 效果的인가를 親히體得하시기를切望하여 推奬합니다。

手足과關節의 麻痺와 아픈것이 잇고 血壓은 常態로까지 내려

大牟田市七浦町 松重敏一



저는 미리가 흐릿하고 記憶根氣가저거지고 健忘症에걸려버리고 게다가手足과 關節이아프며 血壓이놉고무엇을하던 실증이생겨서每日不安한날을 보내고 잇섯습니다。그런데偶然히 新聞紙上에서호르치錠의廣告를보고 곳服用하엿섯더니 漸次 머리가깨끗하여지고 肩臂痛과手足과關節이아픈것이 나엇스며 더욱一週日前에 醫師의診斷을바덧더니 血壓은거의常態로내렷다하므로저는 기뻐하고 잇습니다。이제부터는 感謝하는一端으로서 同病者에게 꼭推奬하여저와가튼健壯한 몸이되도록 하고저합니다。

排毒과 順血에 フルチ錠

主効: 梅毒 胎毒 淋病 脊髓癆 動脈硬化症 血壓亢進症 心悸亢進症 中風 半身不隨 甲狀腺腫 腎臟病 貧血 喘息 류-마치스 神經痛 神經衰弱 腦神經痛 히스테리 頭痛 便秘

(全國有名藥店에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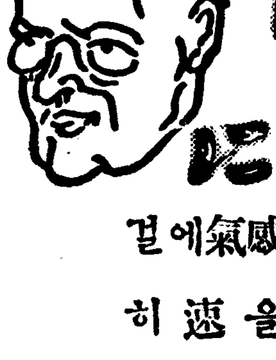
古醫學에서再檢討 (四六判美册子) 無代進呈 藥價로申込하시면送呈

病毒排除 血液循環とふる血療法

◆이런症狀인분은꼭一讀하라
▽頭重、耳鳴、肩臂痛、手足麻痺잇는분(中風、腦溢血)
▽動悸、息차고、盜汗으로고생하는분(心悸亢進症)
▽便秘되고몸은치로고생하며잘못자는분(梅毒、神經衰弱)

申込所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ノ二 古醫學研究所 電話京橋(56)二五八四番·二六二八番 振替口座東京大五三○八番

感冒에



惡寒과·發熱과·感氣에걸렷슬때는一刻을速히

胃腸障害其他副作用絶無

爽快한效力에定評이잇습니다 胃腸障害其他副作用이업스므로 安心하고쓰실수잇습니다。感氣면實効散으로決定하십쇼。

全國藥店에有합니다

東京神田明神下 實効散本舖 師岡天然堂 振替東京一三七二番

實効散

感冒解熱特效藥

NO.20

鮮麗하고도精良— 이一元化를다하야서 絶對聲價의아데나!

日本의잉크를代表하는 丸善アテナインキ

●低廉한고급아데나萬年筆●

65 c.c.入 ¥.30

MARUZEN MARUZEN MARUZEN MARUZEN MARUZEN MARUZEN MARUZEN

東京·株式會社千代田山岸商店

効能 上氣를내리고便通을조케하고 매毒·림질·諸毒을내린다

効能で賣れる 七ふく ひえぐすり (히에구스리)

『가짜』가잇습니다

(藥價) 一週分 廿五錢 二週分 五十錢 五週分 一圓二十錢 送料 十錢 海外 四十二錢

大阪高津表門筋

本家七ふくや伊藤長兵衛

振替大阪九七三·電話南二七九二

皮膚 チャージ (차-지)

근지러운 皮膚病

옴、버짐、음낭진、여드름、무좀、頑癬、南京虫의咬傷에한 特効

卅錢、五十錢、一圓、五圓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모루히네 其他 塩類中毒에

福 モナール (모나-루)

우리가 萬一不幸해서 한번治療를 그릇치고 『慢性모루히네中毒症』으로 移行하야 『모히』에依한 苦痛을 벗어나지못하는분은 即時 『福모나-루』로 除去하고 一般症狀을 治癒케하며 迅速히 健康을 回復케되므로 安心하고 應用하십을 切望함

適應症 모르히네、헤로인、阿片、판토폰、코카인等 其他同類似麻醉藥中毒症

製造元 順天堂醫化學研究所

發賣元 田邊五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文獻進呈)

食物의 完全消化

三共 SANKYO

榮養增進에

飮食物의完全한消化吸收를제처놋코 더외놋코榮養藥物을服用하는것은 無意味하기짝이업는것이올시다。다까지아스다-제는 强力無比한澱粉消化力을갓엇을뿐만아니라 또한蛋白質을爲始하야 脂肪、纖維素、펙시칀、이누린其他十餘種의 消化酵素를含有하고잇으므로 消化作用이多角的이고 胃酸液、膽아루가리液、茶、커피—等으로因한效力의減退等이全然업습니다。

說明書進呈 粉末과錠劑가잇습

綜合的消化酵素

다까지아스다-제

(タカヂアスターゼ·TAKA-DIASTASE)

東京·三共株式會社·室町

京城出張所 京城府大和町一丁目五

重要商品과金融

京城十月中概況【朝鮮銀行調査】

米 旱魃不作의 南鮮地方은 何如間에 半年作以上의 地方으로부터 相當量의 新穀出廻가 豫想되엇스나 一日高値를 생각하는 生産者는 新公定價格으로서도 賣急지안코 京畿 黃海 平北의出廻地에 對하여 一時에 殺到되어 實需情勢에 一時拍車를 加하는 結果 여各道로부터 [illegible] 咸北을 比롯하여 各道에서는 道內需要의 確保又는 公定價格을 維持코자 方策을 取한때문에 依然品薄狀態로 越月되엇다

仁川期米도 白米의公定市勢가 潮高이므로 正租 玄米을 上場할 市場은 全히 去勢되어 全然取引이업시 終結되엇다

本月三日米穀年度도 終了되는데 十四年度의 輸移出總計六、八九四千石으로 前年에 比하여 輸出은 五四八千石의 增加 移出은 四、六五一千石의 減少를 示하엿다

三日에 發表된 今年度收穫豫想은 一三、九九九千石으로 前年에 比하여 一千萬石餘의 減收를 示하고 來年度의 需給이 困難할 것을 豫想케되어 當局에서는 그根本對策으로서 一、朝鮮內의 酒類釀造石數를 一割減石斷行 二、朝鮮內消費白米를 七分搗로하고 三、滿洲로부터 雜穀輸入의 確保를 圖하여 混食獎勵를 徹底케할 方針을 講究하엿다 本月末現在 朝鮮內主要積出港의 民間在庫米는 總計七四、八六八石으로서 前年同期에 比하여 約三萬五千餘石의 減少를 示하엿다

	上旬	中旬	下旬
玄米 正租 平均 市勢			
普通玄米(四斗)	三三圓八〇	三三圓八〇	三三圓八〇
正租(三斗)	一四圓五〇	一四圓五〇	一四圓五〇

市中이 모두 製品인 白米로써 取引되고 玄米 正租는 다만 公定價格에 不過하는 狀態이엇다

小麥 九、一八 物價引上停止令의 適用을 受하는 만큼 市勢가 不變을 示하고 [illegible] 價格 値上 不能이때미 賣進지안허 閑散裡에 推移되고 反面 所持側도 滿洲物資의 高昂을 보고 賣急치안허 小康狀態에 越月하엿다

	上旬	中旬	下旬
市勢	三圓四〇	三圓四〇	三圓四〇

粟 總督府農林局에서는 旱害에 依한 食糧對策으로서 滿洲粟의 輸入을 企圖하고 中央配給組合으로하여금 이것을 收拔케하기로하고 目下滿洲國과 折衝中인바 相當히 大量의 粟이 低廉한 價格으로 供給될 것이나 現在의 品薄에 依하여 府營種의 [illegible] 閑散裡에 越月하엿다 今年度粟의 輸移入累計는 八七一千石으로서 前年度에比해서 一〇〇千石의 增加를 示하엿다

	上旬	中旬	下旬
市勢	一四圓〇〇	一四圓〇〇	一四圓〇〇

大豆 今年度 朝鮮産의 收穫은 大體二割減收로 內地로서의 洋資이 多少잇스나 新物出廻가 적으므로 取引이 閑散하엿다 一方滿洲大豆의 入荷가 적으므로 市勢도 强保合으로 越月하엿다

	上旬	中旬	下旬
市勢			
滿洲大豆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山大豆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肥料 依然히 入荷 在荷共히 僅少하므로 實買가 업고 閑散裡에 越月하엿다 豆粕은 强保合이오 硫安、過燐酸石灰는 公定價格이다

	上旬	中旬	下旬
豆粕(一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硫安(十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過燐酸(十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鑛油 需要期에 入하엿스나 一般의在荷가 적고 月末에 少量의 入荷가 잇섯스나 市場이 極度로 品薄을 示하면서 越月하엿다

	上旬	中旬	下旬
市勢	自治價格으로 市場不變		

石油 鑛燈(一函) 揮發油(一函) 에가사스 [illegible]

綿絲布人絹 綿絲布、人絹이 모두 實行良好이나 一般在荷는 漸減狀態이다

	上旬	中旬	下旬
市勢			
粗布三A(一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綿絲二十手(一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人絹絲(一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土建材料 木材는前月同樣으로 入荷가 적어 入荷가 적고 一面 朝鮮內材의 入荷가만헛스나 資材가 적어 一般的으로 在荷가 豐富하나 依然民間工事가 적으므로 閑散裡에 越月하엿다 市勢不變

	上旬	中旬	下旬
落葉松板(一寸角四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板材(杉松四分)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세멘트 依然品不足으로 取引은 자못不圓滑하고 價格의 變動이 甚하여 市勢는 지못하엿다

地金買上情況 地金買上은 [illegible] 十月以降 [illegible] 減少하기 始作하여 今年十月末現在 [illegible] 金이 모두 前月에 比하여 增加되엇스나 本年一月以降의 增加[illegible]이 前年에 比하여 多少增加를 示하엿지만 아직 成績이 充分하다고는 할수업다

外國爲替 前月末 英國의 米國에서의 物資大量買付의 資金利用을 依하여 米英크로스 低落의 前途悲觀으로 에 英國이 對米爲替의 [illegible] 朝鮮의 對英一志二片의 [illegible] 外國爲替의 [illegible]

金融 [illegible] 府內組合銀行帳尻(單位千圓、△印減)

種別	十四年十月末	十四年九月末	增減	十三年十月末	比較 增減
預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貸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手形交換高(單位千圓、△印減)

種別	十四年十月中	十四年九月中	增減	十三年十月中	比較 增減
金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枚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工業用原料炭에도 公定價格을設定

家庭用炭流用防止코자

石炭의 公定價格은 嚴寒家庭의 公定價格實施로因하여 價格關係로 家庭用炭만에 이것을 實施하고 工業用原料炭에 對해서는 各炭坑에서의 生産코스트를 考慮하는 同時에 基本産業으로서의 影響의 深刻性을 重視하여 總督府로서 愼重한 態度를 取하여 價格의 公定을 하지안헛는데 家庭用炭의 公定價格實施로因하여 價格關係로 家庭用炭이 原料炭에 流入되어 市井에 잇서서 家庭用炭飢饉을 招來하는 同時에 酷寒期를 앞두고 家庭用炭의 太不足은 需要者에게 큰 脅威를 주고잇스므로 當局에서도 드디어 工業用原料炭에 對하여 公定價格을 實施하기로하고 過般來愼重히 檢討를 하고잇던바 十七日第四物價專門委員會에서 審議하고 다시 二十日物價委員會에 附議決定을 보기로되엇다한다

承認價格制래도 不當하면不許可

物價停止統制令에 依하여 物價는 九月十八日附로 釘付되게되엇는데 九月十八日現在의 物價는 個人的又는 地域的으로 顯著히 相違가잇서서 이價格을 强行하면 公平을欠하고또 物資의 需給圓滑을 缺할 憂慮가잇스므로 承認價格制度를 設置하고 業者의組合又는 團體로하여금 價格을 總督府又는道에 申請할 承認을바드면 右價格을 九月十八日價格으로 看做하기로되엇는바 現在道又는 總督府의 申請狀態를보면 一般으로 取引의 最高價格을 申請하여오고 價格의 値上을 策하려는 傾向이 看取되므로 總督府에서는 右傾向을 是正하여 承認價格制의 本義를 明白히하는同時에 趣旨의 徹底를 圖하기로되엇다

井坂商工課長談 價格承認制度는 九月十八日價格이 凸凹이잇서서 그平均을 하는것이 目的이며 具體的으로말하면 最高最低取引價格을 中間取引價格으로 고치는데잇다 그런데 現在의 申請狀態를보면 一般으로 最高取引價格으로서 申請하여와스나 이러한것은 承認制度의 趣旨에 反하는것으로 承認할수업다 또申請하여온것中에는 御賣價格이 昂騰되엇다는가 生産費가 昂高되엇다는 理由로 値上을 企圖하고잇는 者가잇는데 이러한 事情에잇는것은 公定價格에 依하여 決定할 性質의 것이므로 이것을 承認制度로 決定할수는업다 이一點을 充分理解하여 承認制度에 合致할價格을 申請하도록하라

南朝鮮水電 創立認可申請

南朝鮮水電의 發電及創立申請은 全北道를經由하여 目下遞信、內務兩局에서 愼重協議中인데 同水電의 計劃은 旱害救濟를 目標로하는 特殊的인 것인만큼 當局에서도 急히 處理를 進行하고잇서서 大體로 十二月上旬中에는 內認可를 볼터이다 이에應하여 創立發起의 東拓及朝鮮電力에서는 新會社의 創立準備를 開始하고 東拓理事 佐方文次郎氏는 十六日 入京하여 專혀創立事務에 當하기로 되엇다한다

水産物輸出許可

實績보다朝鮮內需給에重點

總督府에서는 圓域內輸出調整을爲하여 廣範圍에亘한 輸出許可制를 實施中인바 右許可方針은 過去三個月의 實績에重點을 두고잇는關係로 季節的으로 生産하는 海産物類는 顯著하게 輸出이 阻害되므로 此等季節物에 對해서는 實績보다 朝鮮內의需給에 重點을두고 許可할方針으로 決定하엿다 即 對滿北支方面에 多量으로 輸出하는 昆布 鹽 鮭 鱈 乾鰯 貝柱 海蔘等의 海産物類를 爲始 季節的으로 出廻하는 饒諸類에 對해서는 過去三個月의 實績이업스므로 輸出할수업는 狀態이므로 이러한 不公正을 是正코저 此等季節品에 對해서는 朝鮮內需給에 支障업는限 許可하기로 된것으로 이에依하여 季節品의 對滿北支方面輸出의 方途가 開拓된것이라한다

第二次社債 大藏省配定決定

【東京電話商通】大藏省預金部所持社債의 地方銀行에 對한 第二次解放에 關해서는 七十九行으로부터 總額三千二十九萬圓의 買入申込이 잇섯는데 同省에서는 十五日에 이것을 査定하여 政府保證興業債券(ほ號)五百五十萬圓, 滿鐵社債第四十九回八百七十五萬圓, 東洋拓殖債券第四十二回五百萬圓 合計一千九百二十五萬圓을 配定하기로 決定하엿다 今回의 配定方針은 前回의 第一次開放及 貯蓄銀行에 對한 時와 各各가튼方針에依하여 申込銀行의 國債保有率 最近國債消化狀態等에 重點을두고 配定되는것이다 그리고 今回의 配定을受할行數는 七三行으로 配定金額은 最高百萬圓 最低一萬圓이라한다

鮮銀券續增發

膨脹을거듭하는 鮮銀券의 十六日繰越을보면 또三百餘萬圓이 激增되어 二億六千四百九十五萬二千五百三十八圓이엇다

限外發行消滅

지난八日 繰越高에잇서서의 百一萬二千圓의 鮮銀限外發行은 其後繰越에 十一日까지 示現되엇섯는데 十三日繰越부터 消滅되엇다

東京砂糖取引所解散

【東京電話商通】東京砂糖取引所에서는 十五日 臨時會員總會를 開催하고 取引所解散의 件을 附議한結果 滿場一致로 이것을 可決하고 主務省에 認可를 申請하엿다

寸鐵

▼…工業用炭도 公定價格設定. 家庭用炭價格만 定햇섯스니 工業用으로 高價로 팔앗슬것은 事實.

▼…燃料업는家庭을 생각할수잇는가?

▼…鮮銀券大增發, 銀行의貸出新記錄續出. 그뒤에 오는것은?

▼…協定價格을 申請하라햇더니 最高價格으로 承認바들려고 策動. 만허 商工課長이 꾸지람.

▼…어느때라고 이따위수작을하는고? 不許可는 當然.

貸出十三億突破

預金七億六千萬圓

全朝鮮銀行預金貸出新記錄!

全朝鮮銀行의 十月末現在預金貸出高는 또新記錄으로 更新되어 預金은 마침내 七億六千萬圓臺 貸出은 十三億圓臺를突破하엿다 即預金總計는 七億六千五百三十四萬二千圓 貸出總計는 十三億一千七百六十七萬圓으로 이것을 前月末에比하면 預金은 一千二百三十六萬九千圓 貸出은 四千三十萬六千圓의 各其增加이엇다 그內容을 보면 如左하다 (單位千圓△印은減)

◇預金

	十月末	比前月增(△印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當座	[illegible]	[illegible]
特當	[illegible]	[illegible]
通知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貸出

	十月末	比前月增(△印減)
證書	[illegible]	[illegible]
手形	[illegible]	[illegible]
當座	[illegible]	[illegible]
割引	[illegible]	[illegible]
荷爲替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以上과가튼데 이것을前年同期에 比하면 預金에잇서서 一億九千八百六十四萬九千圓 貸出에잇서서 三億四千八百十九萬八千圓의 各其激增이엇다

朝鐵黃海線

狹軌대로改修

輸送力의增大를企圖

朝鐵에서는 黃海線의 輸送力强化를爲하여 廣軌改築案을 樹立하고잇던바 時局에鑑하여 咸北線複線에伴하는 狹軌의資材를 輸送力을補給할 代案으로變更하고 今期以降 着手하기로되엇다 이것은 行違線의增設 貨物線의新設等을 主要個所에하고 列車運行速度及 列車數의增加를 圖할것으로 約三十粁分의 軌條를 이에充當할豫定이다 또 殘餘의軌道는 江界水電方面에充當한다고한다

芮宗錫氏의 「氏」論一席

一見 內地人이다. 恩給부른 退職官吏도갓다. 얼굴에 縱橫으로 기괴패인 주름은 어찌보면 氏가 各方面으로 波瀾만흔經歷을 말하는듯도하다 比喩한다면氏를 薄命美人이라할가? 애기를나어노코 친정으로 가얼이좀만흔가. 會長자리만흔데 구찬흔일에 밟혀고 나스일이 한두번이엇든가 氏自身으로서는 애물만하셧스나 世間에서는 氏의 功績을 안는모양이다. 그리 認定치도 말성만흔것도몰지……

『"氏"는무엇으로 작정하섯습니까』

『아들들불러 戶籍갈러주고 제마음대로 하라햇소 나는 義興芮宗錫이라고나할지……』

『義興이란무엇입니까』

『本이야 貫이 義興이니 本을 이름후에 넣차는것이오 그대로 가만잇스면 本은 永永업서질 것아니오』

『製絲會社問題는 其後어떠케되엇습니까』

『말도마오 구찬허서…社長도 내노핫소 日間總會가 열리겟지만 어번가지』

滿洲國資金計畫齟齬

鮮銀等의貸出激化로

最近內地銀行의 資金이 滿洲國에 流入되는傾向이激化된때문에 滿洲國의中銀及興銀을 中心으로하는 資金計畫이 瓦解에 瀕하게되어 特殊銀行間에서 問題化되고잇다 即 鮮銀大連支店의 貸出은 最近에와서 一億圓을突破하여 [illegible] 一億圓에 肉迫하고잇는 驚異的激增을보이고잇는데 그傾向은 鮮銀뿐이아니라 正金, 第一, 三井, 三菱, 住友等의 內地有力銀行大連支店도 同樣으로 激增되엇스며 勸業, 安田等의 有力銀行도 大連支店設置의計畫을 進行하고잇는 形勢이다 그리고 此等銀行의 貸出增加는 全部滿洲國內에의 貸出增加에基하는 點에 問題가잇는바 그것은滿洲國이 國內資金의 供給機關으로서 當初부터 中銀及興銀을 他金融機關의 存在를 認定치안는 方針을 取하여 今日에 이르게된때문에 滿洲國에잇서서의 産業開發計畫을 中心으로하는 資金需要는 豫想外로 巨額에 達하고 中銀興銀의資金力을 가지고는 到底히 이것을 調達할 수업는 狀態로되어 最近滿洲國政府는 關東州로부터의 資金流入에 對하여 默認的態度를 取하고잇는 關係上 內地有力銀行의大連支店을 通하는 諸貸付가 激增된 데 原因이잇는것으로 今後이러한 政策을 持續할境遇에는 滿洲國內의 資金調整工作은 事實上 不可能하게될것이므로 그推移에 對해서 關係銀行側에서는 深히 興味를가지고 注視하고잇다한다

京城勞銀續騰

鮮銀調査 十月中의 京城勞銀指數는 二一一、二六七로서 前月指數에 比하여 〇、三五 前年同月中에比하여 七、一〇의 各其昂騰이엇다

京城被服工業組合創立總會

京城內에잇는 學生服, 國民服, 作業服, 雨衣服, 兒童服, 샤쓰製造業者로서 組織한 京城被服工業組合은 十六日午後一時 府民館에서 創立總會를열고 當局에 認可申請을 提出하기로되엇는데 同組合의 事業은 如左하다

一、檢査와取締 二、統制 三、共同設備 四、製品販賣 五、需要에必要한物資供給 七、研究調査

臺銀增資 六千萬圓으로

【東京電話商通】臺灣銀行에서는 資本金一千五百萬圓을 第一次整理前인 六千萬圓에까지 增資하려고 大藏省當局과 折衝中이다

倉庫陣容完備中

米倉京城支店開店

米倉會社의 京城支店倉庫는 前般來京城府의 斡旋으로 永登浦의 區劃整理地區內에 九千三百坪의 土地를 買取하고 倉庫及事務所의 新築에 着手하엿는데 倉庫의 竣工은 明春三、四月頃으로될豫定이다 그런데 [illegible] 京城은 非常히 倉庫不足狀態이어서 京町의 朝鮮製鐵工場倉庫 中六百坪의 煉瓦倉庫를 借用하여 開店하기로되엇다 店舖부터 雜穀其他의 入庫申込이 相當히 만흔 狀態이므로 新築倉庫가 竣功되기까지의 應急措置로서 右六百坪의 倉庫도 卽時로 滿庫될 形便이므로 一日이라도 速히 永登浦의 新築倉庫의 完成이 要望된다

海外經濟 十六日

銀行券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 手形交換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鰯油粕麥粉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正米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大阪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今日財界 十六日

◆米穀(單位錢) 玄米⊕銀坊主 四等石 [illegible] 七分搗白米小賣價 [illegible]

◆雜穀(單位錢) 今日 比前日

	今日	比前日
滿粟(鐵嶺)百斤	[illegible]	不變
大豆三等一石	[illegible]	不變
大麥(秋)一石	[illegible]	不變
小麥 新産三等石	[illegible]	不變
京城金(匁 買)	[illegible]	不變

◆株(單位十錢)

	今日後止	比前日後止
朝東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新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商品(先物 單位錢·匁) 大阪 今日後止 比前日後止

	今日後止	比前日後止
綿布	[illegible]	[illegible]
棉花	[illegible]	[illegible]

市場人感

㊑…米價引上의 뒤를이어 다시雜貨價도引上 ▲百般物價가 騰一路를 밟고잇는때에株價만을 뒤떠러질理업지 ▲安取株의 買物은 容易히成功하여 昨日米로 八圓가량의 華麗을 示하고 이를본 朝新買도 熾烈하여 四圓의 捧上 ▲그래도 東新만은 別物視되어 仕手들의 關心조차 離散 ▲游資가 過度히 株界로 流入되면 公債消化를 阻止 ▲此點에서 當局의 政策에 對해서도 警戒할必要가잇슬듯

循環買熾烈 朝取新노 噴上

鮮銀券發行高는 逐日新記錄을 更新하여 드디어 三億六千萬圓에 오르게되엇는데 年末로 갈서

後場採合

後場은 東新一高인 百五十五圓四, 鐘紡百八十四圓四, 鐘新一低인 百二十一圓二로 區區裡에 寄付後 小往來

株式 底堅 雜株續進

前場朝新高

今朝는 朝新五高인 三十三圓丁 東新一高인 百五十五圓丁 滿業八十二圓五 安取三一圓三高인 百二十二圓五 鐘新百五十五圓三 滿業八十一圓丁 鐘新百二十一圓三 安取十九圓五에 大引

[illegible] 前場은 [illegible] 寄付後 結局朝新三十五圓一東新百五十五圓三 滿業八十二圓五 安取 [illegible] 도 纖維買를 爲示하다가 多少의 利喰物이나와 五圓臺로 反落되고 十九圓三의 新高인 三十六圓三의 近

今日의 市勢 十六日

朝取配當据置?

朝鮮取引所에서는 本月末期決算을 못마고 來月下旬定時總會를 開催豫定인데 今期는 仁川米豆部의 不振으로 相當한 手數料收入減이 豫見되나 證券部는 株式의 活況으로 手數料收入이 相當히 增收되어 結局前期와 大差업는 收益狀態로 一割二分配當(据置)을 維持할수 잇는모양이라한다

朝鮮株大活況

最近의 現物은 內地、滿洲物買가 目前限界에 達한感이잇서 大阪市場方面에서도 朝鮮物로 飛火되어 大阪氣配가 旺盛하다는바 大體로 五圓乃至十圓가량의 奔騰을 演하여 株不足時代到來를 생각케하고잇다 今朝도 製鍊이 三圓가량 續高인 五十五圓의 新高價를 내고 雜産新、朝石新、小林新等도 一圓前後의 昂騰을 演하여 强調를 呈하엿다

四億圓臺突破는 必至인形勢이므로 朝鮮內의金融는 去益緩慢한것이잇서 他에適當한 投資對象이 업는때이라 모두株買로 向하고잇스므로 每日每日의 高騰을 박귀가면서 買進하여 昨日米로 安取株의 奔價를 示하더니 이에따라 다시今朝에 朝取新에 飛火되어 一躍四圓가까운 高値를 捧上하고 말엇다 이것은 最近의 雜株買의 潮流에따라 地場側에서 買의 奔動한것이 라한까닭으로보이는데 一方日蘇緊張緩和을 解決할 會談이 開始되엇다하여 對蘇關係株가 昻騰을 續하는等 年末接近을따라 雜株買는 去益增勢를 加할모양이엇다

急히하고잇다 支店長은 近日中에 某方面으로부터 入社하기로 되엇는데 그것이 發表되기까지 本社의 倉庫取締役이 支配人의 兼務로 하고 十一月十五日부터 開店하엿다 또 同社의 京城支店倉庫는 永登浦의 東部方面 西部方面에 京城府計劃의 區劃整理의 完成을 기다려 倉庫를 建設하여 大京城의 食糧 其他物資配給의 調節을 할 倉庫로서의 倉庫陣容을 完備할 計劃을 進行하고 잇다 한다

今日現株市勢(正午調)

◇朝鮮內株式

鮮銀新	[illegible]	殖銀	[illegible]
殖銀新	[illegible]	京春鐵	[illegible]
朝鐵	[illegible]	同新	[illegible]
金剛電	[illegible]	同新	[illegible]
京電新	[illegible]	漢水電	[illegible]
南電	[illegible]	中央無盡	[illegible]
鐵産目	[illegible]	製鍊	[illegible]
無煙炭	[illegible]	小林新	[illegible]
全羅鑛	[illegible]	三陟開	[illegible]
마네新	[illegible]	朝紡新	[illegible]
朝石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拓新	[illegible]	弘中新	[illegible]

◇內地株式

鐘實	[illegible]	帝人新	[illegible]
日曹	[illegible]	日曹新	[illegible]
九曹新	[illegible]	日石	[illegible]
日鑛新	[illegible]	三菱新	[illegible]
日曹鑛	[illegible]	帝産新	[illegible]
郵船	[illegible]	同新	[illegible]
商船	[illegible]	同新	[illegible]
航空新	[illegible]	重工新	[illegible]
神戶鐵	[illegible]	同新	[illegible]
日立新	[illegible]	小倉新	[illegible]
鋼管新	[illegible]	特富新	[illegible]
淺野二新	[illegible]	同二新	[illegible]
日鑛新	[illegible]	니켈鑛	[illegible]
		水産新	[illegible]

京城物價 十六日

◆白米 (一石、單位圓) 七分搗米 [illegible] (一叺)

◆白米(京城小賣商協定價)

◆綿織物 ◇本綿部(反、單位錢) ◇交織部 ◇毛織物 [illegible]

◆燃料 ◆炭類(單位錢、但市內價) 撫順塊炭 中塊 [illegible] ◇內地炭 ◇朝鮮炭 ◇煉炭 ◇京畿道檢査木炭(三匹) ▲石油(三縣新潟、單位錢)

◆織物 ◆砂糖 ◆洋灰 ◆木材 ◆紙物類 ◆塗料 ◆皮革 ◆牛皮 [illegible]

郵運得證券取引店 京城府 黃金町 ㊄

株式 鑑定代引日步取組

	寄付	大引	高値	低値
◆朝取短期				
朝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紡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業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枚	累計 [illegible]枚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長期 [illegible]

◇滿支株式 滿鐵 [illegible] 川崎 [illegible] ▲東京國債 米貨五分半 [illegible]

綿布 / 棉花 / 生絲

限月	寄付	前引	後寄	後引
大阪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生絲 橫濱 先限 現物D格 一八六〇

三國志 【15】

韓龍雲 譯 熊超 畫

宦官의禍 (七)

하진이 사람을 보내어 동탁을 민지(澠池)에 마진데 동탁이 군사를 머무르고 움직이지안는지라. 장양등이 군사가 이를줄알고 서로 의론하되 이것은 하진의 꾀라 우리가 먼저 손을대지아니하면 종족을 멸하리라 하고 먼저 도부수(刀斧手)오십인을 장락궁 가덕문(長樂宮嘉德門)안에 매복하고 하태후에게 고하되 『이제 대장군이 밝가군사를 불러서 신등을 멸하고자 하오니 바라건데 불상히여겨 구하여 주사이다』

하니 하태후가 『너의등이 대장군에게 가서 사죄하라』 하거늘 장양이 『만일 대장군부에 가면 뼈가 부서지고 살이 허터지겟사오니 바라건데 폐하께서 대장군을 부르사 분부하여 주시되 만일 그러치 아니하면 차라리 신등이 폐하의 아페서 죽겟나이다』 하니 하태후가 조서를 발하여 하진을 부른데 하진이 들어가고자할새 주부 진림이 말하되 『태후의 조서가 반드시 십상시의꾀니 결단코 가지못할지라 가면 반드시 화가 잇스리다』 하진이 말하되 『태후가 나를 부르시는데 무슨화가 잇스리오』 원소가 말하되 『이제 꾀가 누설되고 일이 들어낫는데 장군이 오히려 궁에 들어가고자 하는뇨』 조조는 말하되 『먼저 십상시를 불러내인 연후에 들어갈지라』 하니 하진이 말하되 『이는 적은아이의 소견이라 내가 천하의 권세를 가젓는데 십상시가 감히 어찌하리오』 원소가 말하되 『공이 반드시 가고자하면 우리가 군사를 거느리고 호위하여 불측한화를 막으리라』 하고 원소와 조조가 각각정병

오백을 뽑아서 원소의아우 원술(袁術)을 명하여 거느리게하여 원술은 갑주를입고 군사를 정돈하여 청쇄문(靑瑣門)밧게 진치고 원소와 조조는 칼을가지고 호종할새 하진이 장락궁에 이르매 황문이 나와서 『태후께서 특별히 대장군만을 들어오고 다른사람은 들어오기를 허락지 안는다』 하니 원소와 조조등은 궁문박게 머물러잇고 하진이만 들어가서 가덕전아페 이르니 장양과 단규가 나오면서 좌우로 에워싸고 큰소리로 책망하되 『동태후가 무슨죄가 잇서서 망영되이 죽이고 나라어머니의 장사에 병을 피게하고 나

오지 안햇스냐 너는 백성의 집 졀은무리라 우리가 천자에 천거하여 영화를 이루엇거늘 은혜를 갑흘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해치고자하며 네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심히 탁하다하니 맑은놈은 누구이냐』 하니 하진이 황겁하여 빠저 다라나랴할새 궁문이 다 다치고 복병이 일세히 나와서 하진을 두동강에 내엿다. 원소가 오래도록 하진이 오지 아니할을 보고 궁문밧게서 『장군은 수레를 타소서』 하고 크게 위치니 장양등이 하진의 머리를 담넘어로 내던지며 『하진이가 반하기를 꾀하다가 이미 베엿스니 그나머지는 다 놋는다』 『화자가 대신을 죽엿스니 악한무리를 베이고사 하는자는 다와서 싸움을 도으라』 하거늘 원소가 크게 웨치되 하니 하진의 부장 오광(吳匡)이 청쇄문밧게서 불을지르는지라 원술이 군사를 이끌고 궁정에 들어가서 환관의 무리는 대소를 물론하고 보는대로 죽이며 원소와 조조는 문직이를 베이고 안에 들어가니 조충, 정광, 하휘, 곽승 네사람이 쫏겨서 취화가(翠花街)에 오다가 몸이 칼을 마자서 뼈와살이 진흙이 되고 궁중에 불꼿치 하늘을 찔렀다.